



미주동문, 母校愛로 뭉쳤다!

제17차 미주 평의원회의
뉴욕서 23개 지역대표 참석



지난 5월 17일 개최된 제17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서 본회 방문단과 미주 23개 지역에서 온 70여 명의 평의원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한 단합을 다짐했다. <관련기사 2~3면>

제5회 동문 바둑대회

7월 6일(일) 오전 9:30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 ◆일 시 : 2008년 7월 6일(일) 09:30~17:00
- ◆장 소 :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 ◆참가대상 : 서울대 동문, 교직원 및 재학생
(단, 아마 7급 이상)
개인전 출전자는 단체전 출전 불가
- ◆진 행 : ①단체전
단과대·지부별 5인, 복수팀 가능
②개인전(棋力別 64명 이내)
OB조와 YB조로 분리
※ 총 호선(팀 6점반 공제), 스위스 리그
- ◆신 청 : 2008년 6월 26일까지
서울대총동창회 홈페이지(www.snua.or.kr)
양식 참조 후 webmaster@snua.or.kr
- ◆참 가 비 : 없음.
당일 참가자 모두에게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 ◆시상내역 : 1천만원에 해당하는 상품
- ◆기 타 : ①프로기사 초청 기념대국 ②경품 추첨
- ◆문의사항 : 전화 702-2233, 팩스 703-0755

※ 대회 일정·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악출추

여고생 괴담으로 극장가의 주목을 끌었던 괴담이 요즘 광우병 괴담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촛불집회가 초·중·고학생들까지 나선 가운데 서울 한복판 밤하늘을 여러 번 밝혔다.

발단은 한·미 협상타결에 따라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가 과연 광우병에 안전한가를 다룬 한 TV매체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촉발됐다. 이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된 요지는 이렇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확인된 광우병 환자 2백7명 모두가 MM이라 불리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미국 등 서양인은 인구의 35%만이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비해 한국인은 95%나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두세 배 높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광우병 환자 2백7명 가운데 동양인이 한 명뿐이라는 사실 등을 분석하면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논리의 비약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힘없이 주저앉는 일명 다운너(downer)들의 화면을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방송했다가, 결국 언론

중재위로부터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음을 보도하라는 결정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인터넷 상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인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5%나 된다더라”는 등의 광우병 괴담은 마구 퍼져나갔다. 그렇지 않아도 조류독감(AI) 때문에 닭고기를 꺼려하던 학부모들은 쇠고기 공포증까지 겹치자,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급식에서부터 먹거리 비상에 걸리고 말았다.

물론 이처럼 사태가 악화된 원인으로서 우리 대표단의 협상력 부족은 매섭게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한 논쟁과 검증은 가급적 과학적 방법에 의해 냉정하게 접근돼야 한다. 아무리 감성시대라고 하더라도 괴담이 해괴거리 수준을 벗어나 사회적 공론으로 둔갑하는 순간, 우리사회의 안정은 뿌리 채 흔들리고, 모처럼 복원된 한·미 동맹관계까지 빼걱거리게 될 것이다.

때마침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두 나라 동문부터라도 광우병 괴담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관한 과학적이고도 진지한 공론의 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圭)

광우병 괴담과 公論

‘미주동창회’로 명칭 변경 ... 활성화 방안 모색

본회 林光洙회장과 모교 金信福부총장을 비롯한 동문 10여 명이 지난 5월 15~18일 미국 뉴저지 더블트리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참석해 미주지역 동문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하버드클럽·에일클럽(동창회관)을 비롯해 그레이트 아메리칸 명예의 전당,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을 방문해 장학빌딩 건립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돌아왔다.

방문단 환영전야제서 동문 13명에 감사패

미주동창회(회장 李典九)는 지난 5월 16일 뉴저지 더블트리호텔에서 본회 임원, 모교 보직교수 그리고 각 지부 평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의원 및 방문단 환영 전야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본회 林光洙회장, 孔大植·辛鉉雄부회장, 金鳳九미대동창회장, 간삼파트너스 元正洙고문, 許 瑄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모교에서는 金信福부총장, 사회과학대 林玄鎮학장, 발전기금 朱鍾南상임이사·金聖鎭전문위원이 함께 했다.

李典九회장은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매년 방문해주시는 林光洙회장님과 동창회 임원 그리고 모교 金信福부총장님을 비롯한 보직교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날 뉴잉글랜드 음악원에 유학 중인 나유선(성악02-06)동문 등이 아름다운 노래로 고국 방문단을 환영했다.

李典九회장이 뉴욕지부 權寧大(공업교육73졸)·李承益(화학공학75졸)·琴榮川(약학72-76)동문, 워싱턴지부 權基顯(교육심리53-57)·金明洵(작곡66-70)·尹台根(경제69-73)동문, 휴스턴지부 李奎振(약학60-64)동문 등 1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모교 발전기금 모금안 홈페이지 유지 등 논의

17일 오전 9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17차 평의원회의는 70여 명의 평의원들이 참석해 5시간에 걸쳐 동창회 현안문제 해결과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동창회 명칭 변경, 현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유지 문제, 모교 발전기금 모금 등이다.

李典九회장은 동창회 명칭 변경과 관련해 “현재 캐나다 지부까지



본회 林光洙회장이 韓昌燮동문(右)에게 미주동문 언론인상 수여



金世中동문(右)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모교 金信福부총장이 李重熙동문(右)에게 자랑스런 동문상 수여



미주 李典九회장이 워싱턴지부 權基顯동문(右)에게 감사패 전달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서울 대동창회’를 ‘서울대미주동창회’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아 평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표결에 부쳐져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창회보 제호도 ‘서울대미주동창회보’로 바꾸기로 했으며 한글로 표기하기로 했다.

공식 홈페이지 유지 문제는 현 홈페이지(snu.net)가 유명무실



해지고 ‘다음 미주동창회 카페’(cafe.daum.net/snu10)가 활성화되면서 제기됐다.

楊仁會(농학58-64)IT위원장은 “인터넷 카페에 들어오는 동문들의 수가 홈페이지 접속 수를 넘어선지 오래고 유지와 기능면에서 카페가 좋은 점이 많다”며 공식 홈페이지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지부 金知榮(영어교육69-73)회장은 “선불리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독려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결정이 나지 않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모교 발전기금 모금과 관련해 吳仁錫(행정58-62)발전기금위원장은 동문 한 명이 매년 1달러씩 기부하는 캠페인을 제안했다. 吳 위원장은 “1달러가 작은 돈이긴 하지만 모든 동문이 참여할 경우 꽤 큰돈이 된다”며 “각 지부에서 분담금 형식으로 의무감을 갖고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朴允洙(물리48-52)동문은 “우리 수준에 1달러씩 분담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을 회보의 고정칼럼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 더 큰 돈이 모일 수 있다”고 말했다.

모교에 직접 돈을 송금하는 것보다 유학 오는 후배들을 돕는 일이 현실적이고 더 가치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金鍾律(영어교육51-55)동문은 “미국으로 유학 오는 후배들에게 멘토가 돼 주는 것도 모교를 돕는 방법”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덧붙여 吳仁錫발전기금위원장은 “올 여름 에일대 서머스쿨에 21명의 후배들이 올 예정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林光洙회장 만찬사 <요지>

총동창회의 역점사업인 장학빌딩의 건립은 저에게 맡겨진 가장 보람있고, 뜻있고 길이 남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동문과 그 가족은 물론 후세까지 자랑스럽게 애용하는 우아하고 멋진 만남과 대화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2~3년 후면 서울 마포 공덕동 로타리에 서울의 명소가 될 지상 19층, 지하 6층의 세계 최고의 동창회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곳은 신공항지하철의 서울역 다음 역이 될 것이므로 여러 분께서는 자신들의 손을 잡고 장학빌딩을 방문해 모교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억원 이상 출연해 주신 18분과 5천여 동문의 애정어린 참여로 건립기금 모금의 당초 목표액이 거의 달성되는 시점에서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이 가세한 결과 완공되는 시점에서의 장학빌딩으로 인한 동창회 재산이 1천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액, 1백달러라도 많은 동문이 참여해 모래알 같다는 서울대인의 인상을 불식시키고 그분들의 이름을 명예의 전당 벽면에 동판으로 새겨 그 고마운 뜻을 영구히 기리도록 할 것인 바, 미주 동문들께서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라도 문의 열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저는 이 시점에서 모교의 일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모교는 우리나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온 것이 사실이지만, 현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을 지향하자면 동문들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 동문님께서 모교에 소액이라도 발전기금을 출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주동창회는 23개 지부 7천여 동문으로 조직돼 있으며 2년마다 각 지부가 돌아가며 회장을 맡고 있다. 내년에는 시카고에서 평의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만찬회에서 공로패 수여 李泰植주미 대사 축사

평의원회의가 끝난 뒤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평의원 및 본회 방문단 환영 만찬회가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동창회와 모교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동문들에게 공로패를 시상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이 韓昌燮(정치57-62)동문에게 미주 동문 언론인상을 수여했으며, 金世中(토목공학50-57)·郭相峻(약학55-59)·成耆魯(약학57-61)·楊仁會(농학58-64)·李勝子(영어교육60-64)·裴圭台(경제61-66)·鄭弘澤(상학61-68)·朱漢守(수리학62-66)·尹相來(수리학62-66)·金東石(국악64-68)동문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또 金信福부총장이 李長茂총장을 대신해 李重熙(섬유공학50-57·영광부문)·金泳德(전기공학55졸·사회기여부문)·吳仁煥(천문기상63-67·참여부문) 동문에게



☑ ‘자랑스러운 미주동문상’을 수여했다.

林光洙회장은 장학빌딩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2~3년 후면 마포 공덕동 로타리에 서울의 명소가 될 지상 19층, 지하 6층의 세계 최고의 동창회관이 세워지게 된다”며 “여러분께서 자손들의 손을 잡고 장학빌딩을 방문해 모교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면 만찬사 요지 참조〉

金信福부총장은 “올해 외국인 교수를 1백명 채용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는 높은 연구실적을 가진 교포들도 초빙 대상”이라며 “주위에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많은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특별히 이날 모임에 李泰植(외교64-70)주미 대사가 참석해 동문들과 환담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李泰植대사는 한미 FTA와 관련해 “현재 분위기로는 내년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는데 민주당은 FTA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며 “한미 FTA 협정 법안이 올해 안에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이 연간 1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요즘 FTA 협정이 의회

에서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2백60명의 의원을 일일이 만나서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미주 각 지역에서 오신 동문들께서도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각 지역에서 민간 외교를 펼쳐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식 행사 후 막을 올린 환영음약회에는 朴尙元(국악69-73)·廉京默(성악85-89)·윤자영(성악89-93)동문을 비롯한 많은 음대 출신 동문들이 출연해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행사 비용은 뉴욕지부동창회 金世中회장이 제공했다.

골프대회로 행사 마무리

이번 미주동창회 행사는 골프대회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18일 뉴저지 리버 베일(River vale)골프장에서 열린 골프대회에는 70여 동문이 참가해 라운딩을 즐기며 친목을 도모했다.

林光洙회장은 대회 후 만찬자리에서 미주동창회에 격려금을 전달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든든한 울타리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 작별의 인사를 전했다.



하버드클럽의 동문 휴식공간



에일클럽의 가장 큰 연회장간



뉴저지 리버 베일(River vale)골프장에서 열린 골프대회

전당 내에 전시될 흉상을 만드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히 동행한 웅진재단 辛鉉雄(지리64-68)이사장은 “각 흉상 밑에 적힌 안내문과 정치가, 법률가, 교육가, 군인 등으로 표시한 분류판 등은 나중에 명예의 전당을 만들 때 참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맨하튼 하버드·에일클럽 기부자 초상·역사물 소개

본회 林光洙회장, 李典九미주 동창회장 등과 함께 방문한 하버드와 에일클럽은 미국 대학 동창회관의 좋은 본보기였다. 이 두 곳은 컬럼비아·코넬클럽 등 다른 대학 클럽과 함께 맨하튼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다.

미 대학의 클럽(동창회관)은 기본적으로 호텔과 흡사했다. 숙박시설, 연회장, 휘트니스센터, 식당, 세미나룸 등이 기본 시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대학 클럽이기 때문에 해당 대학 동문들 외에는 이용이 어렵다는 것과 도서관이 마련돼

있다는 점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복도 등 빈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 해당 학교를 졸업한 유명 동문과 기부자들의 초상화, 학교 역사 물품 등을 전시해 놓은 점이 대학 클럽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했다.

참고로 하버드클럽은 학풍이 느껴지는 고풍스런 클래식 장식의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으며 운영 주체도 회원들이 아닌 학교라는 점이 특이했다. 또 클럽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동문이라는 자격 외에도 클럽회원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자격제도를 갖고 있었다. 연회비는 4백~1천6백달러 차등제로, 졸업 9년차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겨 회비도 1천6백달러로 가장 높았다.

구겐하임·메트로폴리탄 현대 전시공간 흐름 파악

이번 견학 기간 동안 현대 전시공간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뉴욕에 있는 여러 미술관과 박물관도 함께 둘러봤다. 구겐하임 미술

뉴욕지부 秋載玉동문 장학빌딩 기금 1만달러



17일 미주동창회 만찬 행사에서 秋載玉(의학63졸)동문(사진)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만 달러를 쾌척했다. 秋載玉동문은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며 “늘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해준 모교를 위해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秋載玉동문은 월남전 참전 후 미국 뉴욕에 정착해 마취과 개업의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뉴욕지부동창회 이사장으로도 봉사하고 있다.

李淳錫동문 5천만원

지난 4월 24일 프라임텍 인터내셔널 李淳錫(의학61-65)회장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쾌척했으며, 장학빌딩 건립 후 ‘李淳錫특지 장학회’ 명의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李회장은 현재 정유 및 석유 화학 공장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 케미칼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수처리약품 및 제조공정용약품 등을 생산·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천만원 출연 줄이어

지난 5월 23일까지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녹색극장 千男重(광산학65-69)대표가 1천1백50만원, 참배나무골 張休東(농경제59-63)대표와 대우엔지니어링 姜信赫(문리66-73)부사장이 각각 1천만원을 출연했다.

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뉴욕 현대미술관(MoMA), 유대인 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이 그곳이다.

元正洙고문은 “장학빌딩 명예의 전당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서울대 및 동문들의 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꾸며야 한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전시공간을 둘러보며 첨단 기기 배치, 조명, 동선 등을 살펴본 것은 뜻 깊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南〉

박물관·미술관·대학 클럽 견학

장학빌딩 ‘명예의 전당’ 벤치마킹

이번 방문단의 목적은 평의원회 참석 외에도 명예의 전당 견학이라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장학빌딩 명예의 전당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려는 林光洙회장의 각별한 뜻에 따라 장학빌딩을 설계한 간삼파트너스 元正洙(건축53-57)고문과 명예의 전당을 담당할 미대동창회 金鳳九(조소58-63)회장이 이번 순방에 동행했다. 元正洙고문은 포항공대, 강남 포스코 센터 등을 설계한 건축가이며 金鳳九회장은 이화여대 조소과 명예교수로서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각가다.

두 동문은 미주동창회의 기본 행사만 참여하고 틈나는 대로 뉴욕의 거리로 나섰다. 첫날 브롱스 커뮤니티 교내에 위치한 ‘그레이트 아메리칸 명예의 전당’을 시작으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MoMA)’, ‘유대인 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에일클럽’, ‘하버드클럽’ 등을 방문했다.

金鳳九회장은 “예전에도 몇 번 들른 곳이었지만 명예의 전당이란 컨셉트로 바라보니 많은 것이 새롭게 보였다”며 “특히 그레이트 아메리칸 명예의 전당이 인상에

남는다”고 말했다.

元正洙고문은 “이번 견학을 통해 좀더 세밀하게 명예의 전당을 준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런 좋은 기회에 전시 공간 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레이트 아메리칸 전당 인물개성 살린 흉상 전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찾아간 ‘그레이트 아메리칸 명예의 전당’은 뉴욕시립대 컬리지 중 하나인 브롱스 커뮤니티 교내에 자리잡고 있었다. ‘명예의 전당’ 효시로 알려진 이 곳은 반원형 옥외 복도로 길이 1백92m, 너비 약 3m로 된 공간에 워싱턴, 링컨, 제퍼슨, 카네기 등 정치인, 작가, 예술가, 교육가 등 1백2명의 흉상이 전시돼 있었다. 각 흉상 밑에는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과 함께 그들을 함축하는 짧은 문장 혹은 생전에 남긴 명언이 적혀 있다.

金鳳九회장은 “모든 흉상을 일률적으로 만들지 않고 각 인물의 개성을 살려 크기, 모양을 다르게 표현했다”며 “장학빌딩 명예의

노리나무팡팡

허버트 사이몬은 박사학위는 정치학, 노벨상은 경제학으로 받았다. 참 실력은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는데 취미가 심리학이어서 필자가 만나러 갔을 때 그는 심리학과 교수였다. ‘가짜의 과학’이라는 자신의 책을 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라고도 했다. 그의 독창적인 연구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경제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의 융합에 있어서 단연코 세계 제일이다. 카네기 멜론대의 컴퓨터공학을 MIT대에 맞먹게 만든 장본인이라고도 한다.

필자가 만난 분 중 많은 감명을 받은 다른 분은 경영학의 시조 피터 드러커 교수가 아닌가 한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마르크스가 가장 많은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다면 그는 반대로 가장 많은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릭 워런 목사는 미국에서만 1천만권 이상 팔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다. 어떤 분이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책을

쓸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바로 드러커 교수를 찾아가서 많이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드러커 교수는 모두 35권의 책을 썼는데, 대부분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책 쓰고 강의하는 것인데 평생 이를 하게 된 것은 큰 행운이며, 자녀 4명도 모두 잘 성장해 가정적으로도 행복하다고 했다.

이런 인재를 육성하자

宋 丙 洛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본보 논설위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94세, 부인은 92세였다. 부인은 그 연세에도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소형 중고차를 직접 운전도 했다. 대단한 부자인데도 검소하기 이 루 말할 수 없었다.

드러커 교수는 자신경영이론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자신경영의 첫째는 누구나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단점이 아니라 강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했다. 그리고 매 3~4년마다 학자는 새로운 전공, 기업경영인은 새로운 업종을 한 개씩 정해 프로 수준까지 연구하라고 했다. 그는 30세부터 그렇게 하여 전공분야가 10개가 넘는다. 일본 미술을 그렇게 공부해 캘리포니아대에서 일본미술 교수를 5년간이나 역임한 바 있다. 성서는 매년 한 차례 정독해 거의 다 외을 정도이다.

미국의 강점은 이런 인재가 세계에서 가장 많고, 또 한 하버드, MIT 등의 세계 일류대학들을 끊임없이 육성해 낸다는 사실이다. 한국도 앞으로 이런 인재를 많이 육성해야 한다. 현 서울대 교수 중에는 세계적인 인재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들이 사이몬이나 드러커 교수 같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관악시단

왕십리역 유실물센터

朴 鍾 大
(국어교육52-56)시조시인

유실물?
가슴 덜컹
워
봐 두고 왔구나 너
그게 무엇이던가
언제 어디서였지?

작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생각이 나야 말이지

더한 일 그르칠라 그냥 가자 새삼스럽다
가노라면 또 나온다
왕백
왕천
왕만리역

그 때는 거기 어디 가서는
문득
생각 날 거야

동문칼럼

서울대학교는 지난 1997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제대학원의 전신인 국제지역원을 신설해 국제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협동과정 형태의 석사와정을 출범시켰다. 국제지역원은 2003년 3월 정식 국제대학원으로 승격됐으며 국제대학원은 이제 국제학 전문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모교 국제대학원은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학생 전체의 30% 이상이 외국인 학생이며 거의 모든 강의를 영어 또는 외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투자전문가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회장, 이탈리아의 로마노 프로디(Romano Prodi) 총리,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의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교수 등 외국의 저명인사들이 모교 대학원에서 강연하고 학생들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어 국제대학원이

단일 학문분야를 뛰어넘는 다학제적인 지식과 전문분야의 실제경험을 중시하는 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구사능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겸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크게(globally) 생각하고 지역에 맞는(regionally)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젊은이들을 키워내고자 한다.

국제대학원은 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와세다대, 중국의 북경대와 공동으로 하계학교를, 프랑스의 에섹(Essec) 경영대학원과는 복수학위(Dual Degree)제, 태국의 출라롱콘(Chulalongkorn)대학과는 한국학 석사학위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朴 泰 鎬
(경제71-75)
모교 국제대학원장

2008년 가을학기부터는 개도국으로부터 매년 20명 정도의 공무원들을 입학시켜 국제개발정책학 석사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기로 했다.

모교 국제대학원은 이제 새로운 미래비전을 세우고 향후 10년을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 더욱더 발전하고자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화 교육

지난 10년의 성과와 새로운 비전

서울대학교의 국제화에 중심에 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5백명이 넘는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한 것이다. 국제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국어 실력을 겸비한 모교 졸업생들은 국제기구,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 및 컨설팅, 국내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학계 및 언론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들 졸업생 대부분은 국제관련 업무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국제화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교 국제대학원은 정보화 및 세계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의 중심이 됨은 물론 국내 최고의 국제학대학원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나아가 동아시아 관련 교육과 연구의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세계 유수의 국제학전문대학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국제대학원이 이러한 비전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화된 교육체제의 구축, 실무 및 국제경험의 확대, 연구활성화, 세계적 수준의 교육 및 연구시설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인정받는 국제학대학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대 동문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편집주간 許 瑄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李東官, 趙在鏞, 金鎮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제10회 모교 초청 사은 골프대회

任廷基교수·韓斗鎭동문 우승 차지

메달리스트 鄭潤煥, 통게스트 李吉女·崔炳善, 니어리스트 徐桂淑·柳寬熙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5월 10일 인천그랜드CC에서 모교 교직원과 동창회 임원을 초청, 스승의 날 기념 제10회 사은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1백2명이 26개 조로 나눠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오후 시상식에서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의 세계대학평가가 날로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첨단산업의 중심이 될 차세대 융합기술원 개원, SNU 기술지주회사 발족, 국제하계학교 개설과 자율화추진위원회 발족



동창회장배 우승 任廷基교수(右)

등 국제화와 첨단화가 발빠르게 진전되고 모교의 자구노력이 알려



모교총장배 우승 韓斗鎭동문(右)

지고 있어 동문들의 모교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 모교가 ‘VISION 2025’를 향해 가는 길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미국의 하버드와 예일대 등 명문대 졸업생들이 모교를 사랑하고 모교를 돕는 애교 정신을 모두 간직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서울대가 본격적인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금년 2학기부터는 노벨상수상자 급을 포함한 외국석학을 교수로 대거 채용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그동안 국립대학교라는 특성상 경쟁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으나 이제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도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대학에 주어진 과제와 책무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본회 朴英俊감사의 경기 결과 발표에 이어진 시상식에서 林光洙회장이 모교 교직원 중 우승을 차지한 의과대학 任廷基(의학68-75)학장에게 ‘동창회장배’를 수여했다. 또 모교 李長茂총장이 동문들 중 우승을 차지한 대한병원협회 韓斗鎭(의학50-56) 명예회장에게 ‘모교 총장배’를 수여했



메달리스트 鄭潤煥동문(左)



통게스트 李吉女동문(右)



통게스트 崔炳善교수(右)



니어리스트 徐桂淑동문(右)



니어리스트 柳寬熙교수(右)



경품 대상 朴君哲교수(左)

56-62)사장에게 메달리스트상을 전달했다.

한편 통게스트상은 남자부문에 모교 행정대학원 崔炳善(경영71-75)원장(2백30m), 여자부문에 경원대 李吉女(의학51-57)총장(1백70m)이 수상했다. 니어리스트상은 남자부문에 모교 농생대 柳寬熙(농공학63-67) 교수(2.4m), 여자부문에 음악대학동창회 徐桂淑(기악56-60)회장(20m)이 영광을 안았다.

한편 본회 尹勤煥·李金器·金讚淑·安秉勳·李炯均부회장과 모교 權斗煥대학원장이 각 조별 우승자에게 본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골프대회를 위해 본회 林光洙회장이 식음료 일체와 특히 골프장 이용이 많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인천그랜드CC 시설을 제공했다. 또 삼익악기 金鍾燮(사회사업66-70)회장이 디지털 피아노 1대와 기타 5대를 부상과 경품으로 기증했다.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姜信浩고문이 준비한 음료수(블랙빈데라티), 李吉女부회장이 마련한 생필품(Unilever) 선물세트, 李金器(일동제약 회장)부회장이 보내준 ‘아로나민 플러스’ 등을 지급했다. 또 서울대발전기금에서 돈 보기 세트와 기념촬영한 사진을 즉석 인화해 배포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경품 추첨에서 金鍾燮부회장이 시상한 기타의 행운은 모교 행정대학원 盧化俊(섬유공학61-65)명예교수와 치대 李梓鳳(치의학70-77)교수에게 돌아갔으며, 디지털 피아노는 모교 공대 朴君哲(원자핵공학71-75)교수가 당첨됐다. <燮>

<조별 우승자 명단>

▲OUT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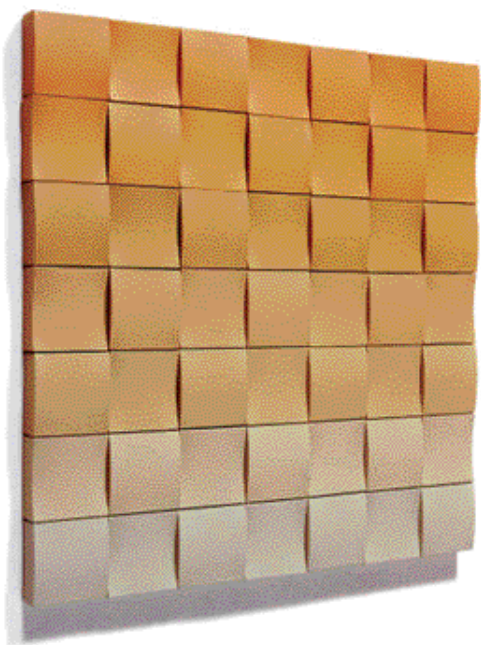
1조 : 金信福부총장, 2조 : 權斗煥대학원장, 3조 : 농생대 金浩卓교수, 4조 : 청아치과병원 金讚淑이사장, 5조 : 딜로이트인진회계법인 金一燮회장, 6조 : 한국수학여협회 崔泰祥회장, 7조 : 공대 朴鍾根교수, 8조 : 자연대 吳世正학장, 10조 : 약대 李承基교수, 11조 : 수의대 朴龍浩학장, 12조 : 공대 金泰由교수, 13조 : 농생대 朴宗信교수.

▲IN코스

1조 : 한국경영인협회 高炳佑회장, 2조 : 보건대학원 李承旭원장, 3조 : 약대 徐永鉅학장, 4조 : 고려대 朴榮敏교수, 5조 : 경영대 朴相昱교수, 6조 : 孫瓊鎬 前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7조 : 코리아랜드컴파니 鄭八道회장, 8조 : 대한치과의사협회 李壽久회장, 9조 : 자연대 金夏奭교수, 10조 : 농생대 李鶴來교무부학장, 11조 : 치대 崔珣哲교수, 12조 : 자연대 洪承煥기획실장, 13조 : 약대 李智雨학생부학장.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金志明 作



‘4월의 황사’, 캔버스에 아크릴릭 페인팅, 180×180cm, 2003.

<작가약력>

- ▲69~73년 모교 회화과 졸업
- ▲개인전 10회
- ▲오늘의 작가전
- ▲에콜 드 서울전
- ▲표현그룹전
- ▲아트페어
- ▲호울화전
- ▲현재 전업작가, 호울회 회원

정치·외교학과동창회

총선 당선·공직 취임 축하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洪性穆)는 지난 5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총선 당선 및 고위공직자 취임 동문 축하연을 개최했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高興吉(정치62-66)·金炯昨(외교67-71)·李始鍾(정치67-71)·辛鶴用(정치

71-75)·金忠環(정치73-77)·金富謙(정치76-87)·崔球植(외교79-85)·柳成葉(외교80-84)·朴敏植(외교84-88)·趙允旋(외교84-88)동문을 비롯해 총 18명이다. 또 최근 고위공직자로 취임한 동문은 崔時仲(정치57-63)방송통신위원장, 金鉉燮(정치72-76)한국국방연구원장, 全玉鉉(외교75-79)국가정보원 1차장, 金相浹(외교82-86)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미래비전비서관 등을 비롯해 9명이다.



행정대학원동창회 정기총회. 좌로부터 金光琳·金忠環·金東建·金基炳·朴寬用·吳世勳·崔炳善·李東俊·李達坤·李敬俊동문

행대원동창회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

행정대학원동창회(회장 金基炳)는 지난 5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입각 동문·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모임을 가졌다.

행대원 출신으로 새 정부에 입각한 동문으로는 韓昇洙(행대원63졸)국무총리, 金夏中(중문65-69)통일부 장관, 李允鎬(행대원

74일)지식경제부 장관이 있으며 국무총리실 金永哲(농화학65-69)사무차장, 중앙공무원교육원 鄭章植(경제69-73)원장, 국토해양부 權度燁(토목72-76)1차관, 소정심사위원회 姜秉圭(행대원77-79)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禹亨植(사회교육75-79)1차관 등이 영전했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총 11명으로 洪在馨(상학56-60)·李漢久(경영65-69)·許範道(행대원76졸)·金光琳(행대원80졸)·金忠環



간호대학동창회

李愛珠국회의원 축연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李倫京)는 지난 5월 28일 서울 팔레스호텔 궁전홀에서 李愛珠(간호65-69)동문(사진 中) 국회의원 당선 축하 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洪麗信 명예교수, 洪京子교수, 朴容晔 前모교 병원장, 모교 치과병원 張英一원장, 張錫準 前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2백30여 동문이 참석해 李愛珠동문의 당선을 축하했다.

李倫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李愛珠동문의 국회의원 당선은 간호대학 출신의 진출 영역을 넓

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간호사뿐 아니라 국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李愛珠의원은 “40년간 간호사를 하며 환자들을 돌본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겠다”며 “동문 여러분이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실 것을 믿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부 관악산우회

새 鄭文容회장 선출

부산지부 관악산우회(회장 李在喆)는 지난 5월 18일 1백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문수산을 올랐으며, 부산지부동창회 河基成전임 회장이 제공한 경남 안양읍 구수리 별장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임원 개선을 통해 임기 1년의 새 회장에 鄭文容(독어교육72-76)동문을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朴鍾振(체육교육73-81)·金秉基

(정치73-77)·李達坤(공업교육73-77)·李康來(행대원82-84)·朴商敦(행대원84-87)·尹英(행대원84-88)·玄鏡柄(행대원85-87)·劉正福(행대원86-88)동문 등이다.

한편 이날 吳世勳(SGS 7기)서울특별시장이 초청돼 ‘서울을 디자인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펼쳤다.

대전·충남지부동창회

평판사 동문 환영모임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5월 28일 대전시 둔산동 한정식당 삼정에서 趙容武고문, 吳應準회장, 丁英鎭여성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부임한 일반 판사 동문 환영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23명의 판사 동문이 참석했으며, 대전지방법원 金敬鍾법원장·許容碩가정지원장 등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치의학77-83)동문, 총무에 裴泳相(경영81-85)동문, 감사에 李杓植(무역69-76)동문을 선임했다.

SGS동창회

CEO지속가능경영포럼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承漢)는 지난 5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1백6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CEO지속가능경영포럼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환경대학원 金基浩원장, 楊秉彝주임교수 등 내빈소개와 인사에 이어 吳世勳(SGS 7기)서울특별시장의 ‘서울을 디자인하라’는 주제의 특별강연 및 질의응답이 있었다.

건축학과동창회

모교서 체육대회 가져

건축학과동창회(회장 金震均)는 지난 5월 24일 모교 관악캠퍼스 학군단 운동장 및 교수회관에서 3백여 동문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제22회 동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29회 동기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체육대회, 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건축학과동창회는 최근 새 회장단 구성을 마무리짓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회장으로 모교 건축학과 金震均(건축64-68)교수, 감사에 원도 시건축 卞鎔(건축61-66)대표, 다스카 李建國(건축64-68)고문, 총무이사에 해안종합건축 尹世漢(건축79-83)대표, 모교 건축학과 朴鴻根(건축81-85)교수가 선임됐다. (南)

농생대동창회

창립 60주년 기념 ‘상록의 날’ 행사



지난 5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상록탑 제막식을 가졌다.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韓仁圭)는 지난 5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상록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농생대 200동 건물 우측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상록탑 제막식을 열었으며, 자랑스러운 상록인 1백2명의 공적을 소개한 명예의 전당(농생대 75-1동 2층) 현판식도 가졌다.

자리를 옮겨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은 작고한 동문에 대한 묵념, 원로동문 소개, 기념식사, 동창회 60년 회고와 전망, 시상,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제6회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수상자로 모교 산림과학부 朴泰植(임학47-50)명예교수, 한국국류유통수출입협회 金康植(축산52-56)고문, 한국농업사학회 金榮鎭(농학53-57)명예회장, 대한잡사회 沈載益(잡사56-63)회장, 모교 농생명공학부 朴官和(농화학62-66)교수, 모교 식품영양학과 牟壽美(대학원75

졸)명예교수, 탄현농장 林龍澤(농경제54-62)대표, 이지바이오시스템 池源哲(축산73-77)회장 등 8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또 모교 산림과학부 沈鍾燮(수원고농39-41)명예교수와 尹勤煥(농학50-54)前농수산부 장관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농협유통 南星佑(축산69-73)대표·모교 농생명공학부 崔良燾(농화학72-76)교수·국세청 韓相律(농업교육72-76)청장·산림청 河榮帝(농업교육74-78)

청장·농촌진흥청 柳甲喜(대학원81-88)차장·李鶴宰(축산83-88)국회의원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더불어 상록탑 건립, 명예의 전당 개설, 동창회보·기념문집 발간 등에 공헌한 신성건축디자인 김윤종 대표, 신성건축디자인 박인기 전무, 사람과 디자인 윤성진 대표, 동지석재 이상복 대표, 블루버드 이민경 대표, 한우리SJM 朴周然대표, 모교 출판부 金在明제작과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재학생 6명에게 제6회 상록장학상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오후에 열린 74학번 동문 ‘졸업 30주년 기념 사은회’는 기념품 증정, 스승의 은혜 제창, 음대 남성중창단 공연, 샌드페블즈 연주, 경품 추첨 등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이날 동창회 60년사, 농학교육 1백년을 빛낸 영광의 일곱들, 동창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록 등 3권을 담은 문집을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했다. (燮)

만평

李元馥





보대원동창회

5백여 회원 봄맞이 축제 참여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姜寅求)는 지난 5월 24일 청계산에서 제2회 한마음 봄맞이 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보대원 박사회 등 회원 5백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

농대 골프 단체 우승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회장 金錫來)는 지난 5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교에 있는 마또아 골프장에서 회원 및 가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 결과 단체전에서 농과대학이 작년도 우승팀인 공과대학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해 상금과 함께 총동창회장 순회배를 받았다.

개인전 시상에서 메달리스트에 鄭世溶(임산공학87-91), 1위에 김호곤(임산공학95-99), 2위에 吳旺錫(임학84-91), 3위에 河昌

彬(언어학82-87), 장타상에 조용일(산림자원92-97), 근접상에 金錫來(토목공학65-69)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개인상 6개 부문 중 4개를 농대에서 차지해 다른 단과대의 부러움의 질시가 있었으며, 농대는 이날 우승 뒤푼이를 화끈하게 가졌다는 후문도 있었다.

광주·전남지부동창회

중국서 골프대회 개최

광주·전남지부동창회(회장 宋彦鍾)는 지난 5월 16~18일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연대 애플시티 CC에서 제1회 동문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더했다. 기념촬영 후 등반을 시작해 오후 12시 무렵 하산, 옛골도성에 집결해 식사 및 경품추첨 행사를 가졌다. 경품대상인 자전거는 모교 보대원 崔京鎭(수의학88-93)교수에게 돌아갔다.

姜寅求회장은 “동창회 산하에 있는 여러 단체가 임무를 분담해 수월하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며 “이 행사를 통해 동창회의 결속력이 높아지고 모교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축제에 참석한 동문들은 5천여 보대원동창회 회원들을 대표해 보건대학원과 함께 이 축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참석자들은 애플시티CC 클럽하우스에서 만찬을 가진 뒤 첫날을 보냈다. 17일 첫 번째 라운딩을 마친 후 종합 생태관광공원인 애산공원을 둘러봤으며, 연대 개발 구역에 있는 화광 식당에서 만찬 겸 친목모임을 가졌다. 다음날 아침 두 번째 라운딩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ROTC동문회

南鴻基동문 골프 우승

ROTC동문회(회장 金鍾燮)는 지난 5월 23일 경기 곤지암 이스트밸리CC에서 9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故 李鍾範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南鴻基(토목공학74-78)동문 70타(핸디14) ▲준우승 李庸錫(계산통계82-86)동문 70타(핸디17) ▲메달리스트 吳世煥(무역68-72)동문 75타 ▲롱게스트 宋宇燁(체육교육79-83)동문 2백70m ▲니어리스트 安洋玉(체육교육75-79)동문 1.5m



좌로부터 金亮沃회장·林采珍검찰총장·胡文赫법학부 교수

ALP동창회

林采珍검찰총장 특강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동창회(회장 金亮沃)가 지난 5월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林采珍(법학71-75)검찰총장 초청 간담회는 여러 검사장을 비롯해 8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새 정부의 검찰행정과 검찰권 행사 방향’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林采珍검찰총장은 “자유민주주의

의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온 검찰의 공헌에 대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진다”며 새 정부의 검찰상은 ‘바른 검찰’로 강한 검찰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를 주장했다.

오후 7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2시간40분 동안이나 이어져 검찰총장과 의 간담회에 대한 회원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林采珍검찰총장은 이날 특강비를 ALP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사 용해 달라며 특별기부금으로 내놓 았다.

AMPFRI동창회

12기 동기회 골프 1위

식품·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尹煥植)는 지난 5월 20일 경기도 광주 블루버드CC(舊경기상그릴라CC)에서 제6회 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는 尹煥植회장, 모교 보대원 李承旭 전임 원장, 鄭效志 부원장 등 1백24명이 참가해 샷건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 : 우승 12기, 2위 15기 ▲스트로크 개인 : 공동우승 曺金杪(7기)·金明九(13기)회원, 2위 김용우(2기)회원 ▲신페리오 개인 : 우승 김범수(11기)회원, 2위 이정수(20기)회원 ▲여성부 : 우승 문은숙(22기)회원, 2위 朴恩熙(11기)회원 ▲롱게스트 : 심상준(22

기)·김 선(7기)회원 ▲니어리스트 : 조규정(17기)·하월영(22기)회원

GLP동창회

5회 친선골프 열어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辛秉烈)는 지난 5월 26일 경기도 광주 강남300CC에서 1백39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 : 우승 15기, 2위 5기 ▲개인 : 우승 郭淳泰(토목공학63-70·13기)회원, 2위 김원철(15기)회원 ▲여성부 : 우승 고미향(문경만 회원 배우자), 2위 주인숙(16기)회원 ▲롱게스트 : 최윤보(14기)·김명숙(10기)회원 ▲니어리스트 : 박종천(8기)·강미모(16기)회원 ▲이급상 : 강창석(14기)회원 (南)



‘서울대 네트워크’ 회원 링크나우 오프라인 모임

온라인 서울대 동문 모임인 ‘서울대 동창 네트워크(www.linknow.kr/network/snu)’는 지난 5월 15일 서울 강남역 맥주집 하우스에서 동문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섯 번째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다. 온라인 비즈니스용 인맥 구축 서비스 ‘링크나우’(대표 申東濤·건축79-85)의 대학동창회 계시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 동창 네트워크’는 현재 2천1백명의

동문이 활발하게 정보 공유 및 친목을 다지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許信行(농경제62-66)前농수산부 장관, 朴昇柱(경영72-76)前여성가족부 차관 등 62학년부터 02학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후배가 한 자리에 모여 격식없이 명함을 교환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7월 申東濤동문이 탄생시킨 링크나우(www.linknow.kr)는 현재 3만명의 비즈니스맨과 전문직, CEO 등이 가입해 인맥을 연결하고 있으며, 직장인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ACPMP동창회

모교서 음악회 개최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李鍾洙)는 지난 5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2백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ACPMP 관악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3부로 나뉘 1부에서 모교 남성 VIVA중창단, 소프라노 金恩卿(성악86-90)동문, 테너 朴鎮亨(성악89-93)동문의 축가가 있었으며, 2부에는 재즈바 이올리니스트 도진미 씨와 가수 金道卿씨의 공연이 펼쳐졌다. 마지막 3부는 개그맨 嚴龍洙씨의 사회로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시간이 이어졌다.

동창회는 이날 참석자에게 쌀과 골프볼 세트를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상과대학동창회

9회 친선산행 대회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龍濤)는 지난 5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노천강당 앞 버들골에서 동문 및 가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친선산행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천강당을 출발해 저수지-승천거북전망대-해태상-헬기장을 왕복하며 선후배 동문들과 친목을 다졌다. 등산 후 버들골에 모여 음식과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이 제공됐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환경대학원동창회 姜吉夫회장 (국회의원)

환경대학원동창회는 지난 4월 28일 신임 회장에 姜吉夫(한대원 76-84)국회의원을 선출했다. 姜동문은 1971년 건설부 사무관으로 시작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부 도시국장·주택국장, 청와대 건설교통비서관, 한국감정원장을 거쳐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후 2004년부터 국회의원의 길을 걷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건축문화 개선과 건축에 대한 근본 인식의 전환을 위해 6월부터 시행되는 ‘건축기본법’을 제정하고 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姜동문은 “한 가지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다른 일들도 잘 할 수 있다”며 “환경대학원의 특성 자체가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에 기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늘 섬기는 자세로 국정과 동창회 일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취임 소감은.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 동창회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교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AIE-ES: Asian Institute for Energy, Environment & Sustainability) 설립에 환경대학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과정 및 전공별 동문 활동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시도들이 동문 및 후배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15명의 상임이사와 50여 명의 이사진이 계시지만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사진과 동창회 임원회 활동을 확대해 동창회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합니다. 특히 새 이사진은 최근 졸업한 신세대 동문들을 많이 뽑아 ‘젊은 동창회’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동창회도 가을에 열릴 기념 행사에 동문들을 초대해 오랜만에 반가운 옛 동기와 선·후배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기금 마련은 원활한지. “동창회 기금은 기금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뉘는데, 기존의 종신회비, 특별회비, 연회비 등의 구성비와 기금 출연 방법들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특히 모교 장학사업은 1981년 이후 꾸준히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외에도 모교와 협력해 동문들의 재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연구원 설립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환경대학원 지원 동기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건설부 사무관 시절 제대로 된 전문지식 없이 업무를 본다는 것이 부끄러워 진학하게 됐죠. 이곳에서 배운 지식과 체계는 33년간의 건설교통부 근무와 현재 국회 건설

“동문활동 홍보·소모임 마련”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지만 건설교통부에 있는 후배들과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께 모교에 진학하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2년 동안 내실 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속에서만이 모교와 동창회의 내일은 더욱 밝을 것입니다.” (表)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목·취미·직업·지역별로 소모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볼까 합니다. 또 전공별 동문들의 개별 활동에 대한 홍보 등을 대학원 뉴스레터나 홈페이지를 활용해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 모교와의 교류는. “모교 차원에서 추진 중인 아시아지속가능연구원 설립의 중추 역할을 하는 환경대학원을 적극 도와 동창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문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 올해 설립 40주년을 맞이해 환경대학원에서

“광우병, 이질 같은 식이성 질병의 일종”

동문을 찾아서

禹希宗 모교 수의면역학교실 교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안전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온갖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불안한 청소년과 시민의 촛불 시위가 계속되는 등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시중에 무성한 소문의 진위를 알아보고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에 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 전달하기 위해 광우병 전문가인 모교 禹希宗(수의학77-81) 교수를 만났다.

禹교수는 10여 년간 변형 프리온(prion)에 관해 연구, 수의학 분야에선 국내 최고의 광우병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학자다. 미국 쇠고기 수입 및 광우병 발생 가능성에 대해 다소 우려하는 입장인 禹교수는 그러나 이번 인터뷰에서 “광우병은 이질과 같은 식이



대담 : 본보 朴聖姬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성 질병인 만큼 먹는 걸 통해서만 전염된다”며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잘만 익혀먹으면 두려워할 게 없듯 광우병도 선례가 있는 나라에서 배워 주의할 것

주의하면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알려진 과학적 지식대로 처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禹교수와 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광우병(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은 전염병인가요.

“네, 단백질에 의한 전염병입니다.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규정돼 있고,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도 전염병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염되나요.

“기본적으로 먹는 걸 통해 전염됩니다. 0-157이라는 대장균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광우병은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고 사망률이 높다는 것만 다르죠.”

— 시중에 떠도는 괴소문, 그러니까 공기로도 전염이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광우병은 이질과 같은 식이성 질병입니다. 공기로는 전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 키스로도 전염된다고들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과 사슴의 경우엔 타액으로 감염된 경우가 보고돼 있지만 소와 사람의 경우는 없습니다.”

— 광우병이 걸린 소를 문었을 때 그 흙에서 자란 야채를 통해서도 감염된다는 설은.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은 섭씨 6백도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데.

“그렇지 않지만 일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조건에선 안 없어집니다. 섭씨 1백34도, 고압 그리고 양잿물이라는 수산화나트륨(NaOH)이 있는 상황에서 5시간 정도 말균하면 감염력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2백도 이상 고온에서도 감염력이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 광우병 관련 특정위험부위인 SRM이나 광우병에 걸린 소를 문으면 하천이 오염된다는 대목은 어떤가요.

“도시의 하수상태에서는 22일 정도면 감염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장 폐수도 한달이면 1백분의 1 정도로 떨어진다고 돼 있고요. 누가 의도적으로

무엇보다 먹는 것 조심해야 공기·키스·흙 통해서 전염 안돼

광우병 요인 99%는 SRM에 존재 소 연령보다 뇌·척수·내장이 문제

변형 프리온을 수돗물에 넣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감소되죠.”

—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썬 칼로 조리한 채소를 먹어도 감염이 된다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칼날에 묻었던 위험물질이 들어간 요리를 먹었을 경우죠. 이질균이나 대장균이 묻은 칼을 만진 손으로 다른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에이즈도 전염병이지만 가벼운 키스나 공기로는 전염이 안되잖아요. 광우병도 똑같습니다. 단,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은 소량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도축할 때 위험물질을 다룬 칼날 등은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프리온은 어떤 물질인가요.

“프리온은 원래 우리 몸에 많이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 변형이 일어나면 병원성 프리온이 됩니다. 그것이 몸 속 정상 프리온과 만나면 모두 병원성 프리온으로 변화시켜 버리죠. 그러다 어느 정도 양이 되면 뇌에 침착돼 뇌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온은 특별한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병원성 프리온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선 규명이 돼 있나요.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선 보통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길 때 나옵니다. 원래는 같은 종 안에서 생기는 종(種)내의 전염병이었죠. 양에겐 흔했는데 소나 양의 내장 등을 사용한 육골분을 사료로 쓰다보니 소들이 걸리고 그런 오염된 쇠고기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게 된 거죠. 중간 장벽을 뛰어넘은 전염병인 셈입니다.”

— 양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 왜 그런가요.

“애초에 왜 그랬는지는 잘 모릅니다. 1730년에 처음 보고됐습니다. 아마 수평감염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슴에도 퍼져 있습니다. 때문에 녹용 같은 건 아직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 광우병이 위험하다는 쪽 주장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전체 소의 0.1%만 조사를 실시하는데 실은 광우병 소 한 마리가 5만5천 마리를 감염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연간 도축소 가운데 4~7마리가 광우병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로 20만 마리 이상이 감염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엔 그 밑에 깔려있는, 즉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과학자들이 염려하는 건 이겁니다. 영국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했더니 건강한 소 1백만 마리당 25마리 꼴로 광우병이 걸렸고, 광우병이라고 생각되는 집단에서는 5백50마리 정도가 나왔습니다. 건강해 보이는데 광우병에 걸리는 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해 3천5백만 마리를 도축하는 미국에서 0.1%만 검사한 결과로 서너 마리밖에 없다는 것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방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전에 주의하는 게 좋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입장이지요. 미국이 전수검사를 한다면 문제는 없어요. 현재는 0.1%만 검사하고 또 건강한 소에서도 광우병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점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 광우병은 영국에서 처음 확인됐고 지금까지 실제 발병한 것도 대부분 영국이잖아요. 인간광우병(vCJD·변형 크로이츠펔트 야곱병)이 발생한 곳도 대부분 영국이 고요. 지금 문제되는 건 미국 소인데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2백10마리 정도 가운데 1백60~1백70마리는 영국에서 나왔죠.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광우병 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SRM입니다. 유럽에선 SRM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요. 모든 연령에서 창자까지 SRM으로 보고 뇌, 머리, 척수, 두개골 등도 12개월 이상이면 다 SRM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선 광우병이 많이 발생했고 미국에선 덜 발생했으니 기준이 다른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병에 걸린 소의 어느 부위가 위험부위냐 하는 겁니다.

병이 유행한 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나 위험부위는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창자까지 먹는데 30개월 미만에서 창자 중 일부만 떼고 나머지는 모두 들여온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요. 그래서 EU나 OIE에서의 SRM 규정은 각 나라의 상황이나 사회구조, 문화를 고려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OIE의 규정은 나라 간 교역을 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것만은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거기에 나라별 특성이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 것을 당연하다고 전제해 놓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때문에 논란이 이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무상 원조를 받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수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전제한다면 단지 파는 측의 논리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안전한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에 대해 알려진 기준이 있다면 그것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출발점이 잘못돼 있어요. 최소한의 규정인 OIE 규정을 권위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다 따져보니 미국도 이것보다 더 안전한 규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는 그동안 안전한 국제기준이라 안비판하던 OIE 기준과 다르게 바꾸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러니 국민의 불신이 생긴 거예요. 저는 안전성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미국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유럽 기준도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 지금까지 발병한 인간광우병 환자 2백7명 중 1백66명이 영국인이었죠. 99년 이후엔 29명이었고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광우병과 인간광우병 모두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방역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에요. 우리처럼 안전하다는 입장을 취한 게 아니라



“미국에 수입국으로서 권리 주장 바람직”

☑ 위험하니까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자는 분위기 아래 영국의 경우 1백만 마리 이상의 소를 죽인 결과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방역을 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빼놓고 말하면 곤란해요. 숫자는 적지만 인간광우병의 경우 젊은층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긴 어렵고요.”

— 한미 FTA 체결의 중요성에 비춰 웬만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받아들여야 된다, 미국사람들도 다 먹는데 별일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무상원조를 받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수입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장을 비롯해 이것저것 막 먹으니까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산업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체제가 잘 잡혀있으면 미국에서 위험한 게 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유통과 검역 관리 등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에선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위험성은 수치로 말하면 미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막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막지 못해 들어왔을 경우 우리쪽 관리가 너무 허술하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 SRM은 뇌에 66.7%, 척수에 25.6%, 그 다음 소장 그트머리에 3.3%가 들었다고 돼 있던데요. 뇌를 들여오는 경우도 있나요.

“우리 협상조건을 보면 30개월 미만은 뇌, 척수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뇌나 척수는 부드럽기 때문에 저가 햄버거 등에 많이 쓰이죠. 내장은 소시지 같은 데 많이 들어가구요. EU 기준으로 12개월 이상이면 뇌, 척수, 눈, 두개골 다 SR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창자도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SRM이예요. 때문에 과학자 입장에서 30개월 이상 소보다 30개월 미만 소의 SRM이 더 문제라고 봐요. 광우병의 감염 요소는 살코기가 아니라 99% SRM에 들어있거든요.”

물론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OIE에서도 전 세계 광우병 통계를 낼 때 24개월령 이상부터 통계를 잡아요.”

— 광우병과 인간광우병 모두 곧 없어질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글쎄요. 각국 학자들에게 문의했더니 일본에선 광우병이 발생한 이래 20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 청정국가로 간 사례는 없다는 답이 왔어요. 미국의 텔링 박사는 서양인에 많은 MV형이나 VV형은 잠복기가 길어 장차 10년 이상 기다려봐야 하는 만큼 몇 년 안에 청정국가가 되긴 어렵다는 답을 보내왔어요.”

— 미국에 알츠하이머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광우병 탓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니요. 전혀 다른 질병이예요. 사회의 노령화와 보험 발달에 따라 검출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둘 사이에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봐요.”

— 동물성 사료는 모두 금지 조치가 된 거죠.

“영국 등 유럽에선 확실히 그렇습니다. CJD환자 수술 후 생겨난 오염된 외과 기구



를 모두 소독하는 기준을 2억 파운드를 들여 만들었고요.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기준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창자 같은 SRM을 소에게 직접 먹이지 않지만 닭이나 돼지에겐 먹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게다가 이런 걸 먹은 돼지나 닭을 소에게 먹이는 것도 허용돼 있어요. 교차오염이나 교차감염을 걱정하는 이유죠.”

— 미국에선 왜 그런 건가요.

“경제적인 이유가 크겠죠.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작은 창자를 수출하지 못해 연간 9천6백만 달러의 손해를 보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 육류협회에서는 되도록 팔고 싶어하죠.”

— 일본은 어떻게 해서 20개월 미만만 수입하게 된 건가요.

“일본은 일찌감치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험 사례를 제시했어요. 그 결과 2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의심사례가 있으면 자기네가 가서 검사하고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거죠. 우리도 그랬어야 했는데 못한 이유는 정부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광우병 발병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예요. 그러다 보니 체제를 갖추기 어려웠던 거죠.”

— 우리의 식생활 습성이 서양사람과 다른데다 유통이나 관리가 허술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수입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사후 조치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틀을 바꾸는 겁니다. 정부가 솔직하게 유럽 등의 기준으로 보면 ‘위험할 수 있다, 문제가 크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해야죠. 그래야 대비책을 내놓을 수 있어요. 또 재협상을 할 순 없어도 조건은 달 수 있어요. ‘30개월 이상 중 수 출용은 전수검사를 해다오.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중지시킬 권리를 다오’라는, 미국에서도 업자들이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 관리나 유통이 허술한 점은 어떤 대비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축산업자나 유통업자들이 제대로 하도록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관리해야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다 이미 나와 있어요. 축산업자들은 사료나 도축 시 관리를 잘해야 하고, 유통업자들 또한 유통기한을 비롯한 기준을 잘 지켜야 해요.”

세계적 감소는 철저한 방역 덕 국내 유통·검역 관리 강화해야

30개월 이상 소 전수검사 요구 위험 가능성 인정·대책 내놔야

— 방송에서 다우너(downer) 소를 광우병 소라고 내보내서 문제가 됐는데요. 다우너 소가 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면서요. 광우병과 다우너 소의 연관성은.

“칼슘이나 칼륨이 부족할 때도 다우너가 되고 추워도 그렇습니다. 다우너 소가 다 광우병 소는 아니지만 광우병 소엔 모두 다우너 증상이 옵니다. 그러니 예방 차원에서 다우너인 경우는 일단 광우병 검사를 해야죠. 다우너 소가 무조건 광우병 소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사라질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어느 기간 안에요? 천년, 아니면 10년? 홍역 빼고는 아직 사라진 병이 없어요. 다만 이 질병도 한 사이클이 끝나면 감을 잡을 순 있습니다. 소나 사람 모두 우리가 예상하는 프리온 질병의 최장 잠복기를 완전히 돌지는 않았어요. 사람을 잡아먹은 식인종에게서 50년 만에 광우병이 나타난 사례가 있었으니까 최장 50년까지 보지만 저는 30년 정도 봅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지켜봐야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확산 추세라는 겁니다. 건수로 보면 줄지만 그렇다고 안심하다가는 어느 날 다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 현실적으로 훨씬 더 걸리기 쉽고, 파급효과가 더 클 수도 있는 건 A이라고 하는데요.

“동감입니다. AI로 죽은 사람은 66억 인구 중 2백40여 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AI로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세계보건기구(WHO)에선 몇 십억 달러를 들여 방어하고 우리도 방역하거든요. 왜 그러냐. 중간 장벽을 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에이즈가 그렇거든요. 에이즈도 원숭이한테서 왔어요. 원숭이에서는 증상이 굉장히 가벼운데 사람에게엔 치명적이거든요. 원숭이에게서 온지 30년이 채 안지났는데 지금까지 사망자가 3천5백만명 이상이고 매년 5백만명이 감염돼요.

AI도 그래서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면 무서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광우병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을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AI 두려워 할 것 없다, 잘 익혀먹으면 된다. 광우병도 선례가 있는 나라에서 배워 주의할 것 주의하면 문제 안된다. 먹는 것만 차단하면 된다.’ 다시 말해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너무 안전하다고도 하지 말자. 알려진 과학적 지식대로 처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다’라고요.”

—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죠. 현재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와 그 전망은.

“민감한 프리온 검출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혈액이나 식품 등에서처럼 저농도로 발현되는 검사법을 확립함으로써 앞으로는 살아있는 동물에서 직접 광우병 검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또 갈렉틴(galactin)이라는 생체 물질이 지닌 면역 활성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쇠고기 문제로 시위를 벌이는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어린 사람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해줘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그렇게 하지 못한 입장이기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문제는 어른들이 풀어야 하는 것이니 만큼 거리 시위는 삼갔으면 합니다. 다만 차제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기계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나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禹希宗교수는

1981년 모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1982~1987년 일본 동경대에서 일본 문부성 장학생으로 약학부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부터 모교 수의면역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면서 의대 종양학 협동과정과 사회과학대 여성학 협동과정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대한면역학회 이사, SCIE 학회지 부편집장,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포럼기획위원, 법무부 청소년보호 지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李五峰는설위원>

화제의 동문

메가스터디 孫主恩대표

이번호 ‘화제의 동문’ 주인공은 메가스터디 孫主恩(서양사학81-87)대표다. 언론들은 그를 ‘명강사 손사탐에서 벤처신화의 주역으로’ ‘2007 올해의 최고 벤처기업인’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스타 CEO’라고 제목을 뽑곤 한다. 孫동문을 5월 20일, 27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대표이사실에서 두 차례 만났다. 인터뷰 내용을 그가 동창회보에 보내는 편지글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편집자주)

먼저 부족한 제게 이런 과분한 지면을 내주신 동창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게 핸드폰을 거시면 ‘아침이슬’ 노래가 나옵니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내 맘에 설움이”로 시작해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로 맺는 이 노래는 80년대 대학시절이나 지금이나 유일한 애창곡입니다. 가사 그대로 거침없이 살고 싶어서입니다. ‘진리’와 ‘자유’ 이 두 단어가 지닌 정신은 제가 서울대에서 배워 지금까지 가슴 속에 가장 깊이 새겨놓은 가치입니다.

아참,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1981년 3수 끝에 서울대에 입학해 서양사학과를 1987년 졸업했습니다. 대학 4년간 저는 참 열심히 놀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학 내내 ‘거침없이 살자’는 생각만은 버리지 않았죠. 아마 오늘의 제가 있게 된 데는 그런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과외선생에서 교육재벌로 성공했다고 그러합니다. 저는 지난해 1천6백33억원 매출에 5백8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올 매출목표는 2천1백억원입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4천억 자산가라고 부릅니다. 1988~1997년 혼자서 전과목을 가르치다가 사회탐구 전문강사로 대중강의를 시작해 다섯 달 만에 수강생 2

천명을 돌파한 기록도 있었습니다만, 그사이 제게는 결코 안 겪었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1991년 9월 15일, 일요일 오후 네 살 아들과 생후 여섯 달 딸이 아내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들은 얼마 있다 죽고 아내는 세 달 뒤 퇴원했죠. 어린 딸은 이듬해 6월 어느 날 새벽 영영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딸을 묻고 2시간 눈 붙인 뒤 그날 저녁 학원으로 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 밖에 딸을 잊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죽은 두 아이 생각이 그 뒤에도 4년여 계속됐습니다. 몇 번이고 자살을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태



미래지향 ‘온라인 강의’ 선구자
“진리와 자유정신 가르쳐준 모교에 감사”

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맘대로 못하는 이 엄청난 부조리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부모님뿐이요, 그리고 저를 위해 모든 걸 바친 분들도 그분들이란 생각에 (자살을) 못했죠.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참, 지금은 1993년 말 얻은 중3 딸과 1996년 초 하나님이 주신 초등6년 아들 남매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말 그러니까 제가 서른여섯 되던 해에 제겐 또 한번의 변화의 기회가 왔습니다. 12월 31일 경기도 이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이천이냐구요? 4년 뒤에 2000년이 다가오는데 이천이 발음도 같더라고요. 그리고 34시간 집중적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무엇이든 어디 빠져들면 끝장을 내는 성격입니다. 어려서 구슬치기를 4시간 계속하거나 축구를 14시간 동안 한시도 쉬지않고 한 적도 종종 있었거든요.

얘기가 었나갔습니다만 34시간 만에 결

론이 났습니다. ‘깨끗한 장사꾼’이 되자는 쪽으로 말이죠. 저는 당시 매월 5~6천만 원 벌던 학원운영은 부원장에게 맡기고 대중강사로 나섰어요. 강남 학원가에 이력서를 뿌리고 찾아가도 문전박대 당했죠. 그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 나를 안 잡은 게 일생일대의 후회가 될 것”이라고요.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얼마 안가 저를 안 잡은 사람들이 정말 후회하기 시작했죠.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의 메가스터디를 시작하게 된 것은 1999년 케이블TV 홈쇼 공채널을 보면서였습니다. ‘바로 저거야. 학생이 학원 가는 게 아니라 학원이 학생들 찾아가는 시대가 온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듬해 7월 메가스터디 법인을 세우고 2004년 4월 인터넷 강의를 본격화했어요. 지금 고등부 강좌만 2천5백 개인데, 최고 강사를 모았다고 자부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학원강사 孫主恩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하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는 ‘진심은 통한다’ ‘역지사

지’ ‘솔직함’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 말은 꼭 실천하려고 애씁니다. 며칠 전에도 강사 두 분과 문제가 있었는데, 몇 시간 동안 눈높이를 맞추면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들어준 결과 곧 해결됐죠.

금년 초 서울대 발전위원인 저는 李長茂 총장님을 뵈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대가 방학을 이용해 캠퍼스에 청소년리더십과정을 열면 어떨겠습니까?” 저는 서울대 교수님들이 고교생과 재수생, 심지어 학부모들과 접촉할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 메가스터디 매출이 떨어져도 좋습니다. 대학이 사회 속으로 더 들어가 어린 학생들이 일찍부터 글로벌 마인드를 지닐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합니다.

모처럼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동창회나 동문들한테 쓴 소리를 조금 더 해도 될는지요? 제가 보기에 서울대는 그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 돼있습니다.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서울대가 학연에 의한 권력집단이 되기 보단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할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말 우리사회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종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 서울대 좋아서 가니, 아니면 성공하기 위한 보습수표이기 때문에 가니?” 그러면서 이릅니다. “서울대 들어가면 서울대의 변화와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그게 정말 서울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똑똑한 1명이 수십만명을 먹여살리는 지식정보사회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서울대가 배출한 인재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제 꿈 가운데 하나가 이런 특별한 인재, 우수한 인재를 매년 1백명씩 선발해 2억원씩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이라면 자신의 출세보다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고민할 줄 알 테니까 말입니다. 저의 모교, 바로 우리 서울대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長茂起立發言·한겨레신문 선임기자)

6·25특집

현대사 실록

최근 沈載甲동문이 1950년 6월 25일 이후 국민방위군으로서 제주도에서 겪은 체험담을 보내왔기에 6·25전쟁 58주년을 맞이해 현대사 실록으로 게재할 가치가 있어서 이번 호에 소개한다. (편집자주)

제주에서 보낸 국민방위군 생활

‘광광’ 북쪽 멀리서 천둥소리가 새벽부터 요란하게 들려왔다. 큰 비가 오려나 생각했다. 이렇게 1950년 6월 25일 그날, 내가 살던 개간너 佳左洞 우리 동네에서는 라디오가 없어서 전쟁 소식을 알 수 없었다. 당시 인천중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나는 다음 날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인민군이 남침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6월 27일 화요일, 인천중학교 강당에서는 전교생들이 모여 吉瑛義교장선생님의 훈화를 들었다. “앞으로 사태는 심상치 않을 것 같으니 학교는 무기휴학으로 들어간다. 혼란한 시국이지만 절대로 학우들 간에 서로 적대하지 말고 감쌀 것이며 사상이 다르다고 학우를 밀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교사의 말씀이었다.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됐지만, 인민군의 남하가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7월 3일 밤 마침내 인천에도 인민군이 들어왔다. 학교에 가니까 국기계양대에는 인공기가 걸려 있었고, ‘인천의 학생들은 축현초등학교로

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에는 38선을 넘어 평양을 되찾고 압록강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남쪽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쟁발발 3개월 동안 많은 장정들이 북쪽에 끌려갔던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國民防衛軍을 창설하게 됐다.

해를 넘긴 1951년 1월 3일 축현초등학교에는 국민방위군에 지원한 젊은이들이 모여 들었고, 나도 포함돼 있었다. 우리는 밤중에 월미도로 이동했고, 거기서 일본 수송선 신평마루(新興丸)를 타고 남으로 향했다. 제주도에 도착한 배는 며칠 동안 정박해 있다가 우리를 상륙시켰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도 전역을 공산당이 한때 장악했던 4·3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공비들이 한라산에 아지트를 정하고 민가를 습격하고 있었다.

국민방위군은 행군하다가 중간 초등학교나 큰 회관을 지나게 되면 장정들을 몇 백명씩 풀어 주둔시켰다. 나는 유명한 일출봉이 있는 城山浦 新山里의 신산리초등학교에 주둔하게 됐다.

하루는 국민방위군 장교가 병사들을 운동장에 모이게 하더니 육지에서 가지고 온 돈을 모두 내놓으라는 호통이었다. 이 돈 때문에 제주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서 장정들을 억박질렀는데 모두들 어리둥절한 상태로 조용히 있자 한 사병을 불러내서 주머니와 내복을 뒤졌다. 돈이 발견되자 마구 몽둥이질을 해대면서 나머지 모두의 옷을 뒤지겠다고 하는 말에 모두 질겁을 하고 가진 돈을 다 내놓았다.

나는 기간사병 후보자로 선발돼 다른 몇명과 함께 도보로 사령부가 있는 西歸浦초등학교로 가게 됐다. 그런데 이후 서귀포초등학교에서의 국민방위군 생활은 더욱 처참했다. 20명 규모의 교실을 근 2백여 명이 거처하는 나무반으로 사용해서 밤에 누워 잠이 들었지만 깨어나면 몸 위에 다른 사람들의 다리가 포개져 있었고, 운동장에 모여서 보면 모두들 기침을 하고 시커먼 가래침을 뱉어냈다.

식사는 주먹밥에, 반찬이라고는 소금국에 제주도에 흔한 고사리를 넣은 것이 전부였다. 그래도 식사시간이면 난리법석이었다. 커다란 국통에 있는 뜨거운 고사리를 하나라도 더 건져먹기 위해 아비규환을 연출했는데 취사반장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야 기강이 잡히곤 했다. 여기서 장정들의 일과



沈 載 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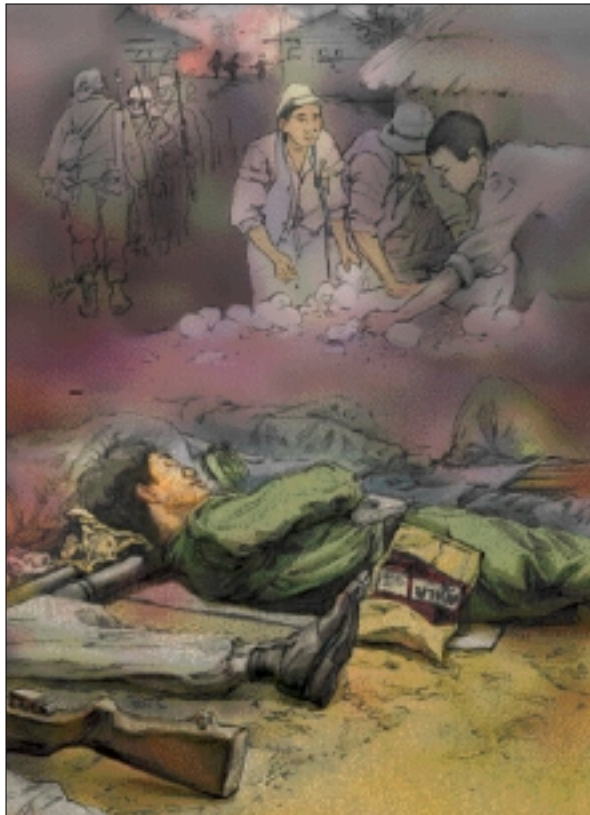
(행정52-56)

吉瑛義선생기업사업회장

란 것은 훈련을 하고 틈틈이 한라산에 올라가 땀감을 구해 메고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들 정신적·육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지고 있었다.

당시 제주도 도민들은 썩은 고구마 조각들을 명석에 말려서 소주를 만들곤 했는데, 배고픔을 참지 못한 장정들이 행군하다가 모두들 달려드는 바람에 주민들은 국민방위군을 보기만 하면 부리나케 명석을 걷었다. 어쩌다 썩은 고구마 조각을 햇빛에 널은 명석만 보면 발뽀처럼 물려가서 이를 주머니에 잔뜩 구겨 넣곤 했다.

채소밭 옆을 지날 때는 인분을 잔뜩 뿌린 곳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 들어가 당



일러스트레이션 金多海(서양화02-07)동문

근이며 마늘 등을 뽑아서 씻지도 않고 입에 처넣었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장정들은 모두 앙상하게 말라갔고 병든 환자는 늘어만 갔다.

그러다 결국 국민방위군의 이러한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소위 ‘국민방위군 사건’이 터졌다. 사건조사 결과 수많은 멀쩡한 젊은이들을 굶겨 죽게 하고 그 보급비와 부식비 등이 막대하게 정치자금화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서둘러 군법회의를 열었고, 국민방위군 사령관 준장 金潤根, 부사령관 尹益憲, 재무실장 姜錫漢, 조달과장 朴贊源, 朴基煥 등 다섯 명의 최고위 참모들이 대구 교외에서 공개 처형됐다. 이들이 횡령한 것은 현금 24억원, 쌀 2천 가마 등으로 밝혀졌다.

국민방위군 사건이 터지자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이때도 국민방위군 측의

알파한 술수가 있었다. 국회조사단이 제주도까지 내려온다고 하자, 환자들과 병색이 있는 사병들을 모두 한라산 숲으로 대피시켰고, 조사 일에 맞춰 처음으로 쇠고기 반찬과 쇠고기 국을 잔뜩 먹을 수 있게 했다. 피복도 새로 보급해 줬다. 국회조사단원들이 막사를 둘러보면서 애로사항을 묻자, 모두 “만족하고 있으며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대답했다. 사전에 교육을 받았고 대답을 할 사람들도 미리 지명해 놓았던 것이다.

어쨌거나 그 후 국민방위군은 해체됐다. 제주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장정들을 귀향시키기 위해 이들을 제주시내 쪽으로 집결하도록 했다.

이들은 제주시내 향교 등 공공시설에 수용됐고 지금의 제주비행장이 있는 곳에 설치된 수백 채의 천만수용소에서 생활하게 됐다. 극도로 쇠약해진 장정들이 하루에도 십여 명씩 죽어갔고, 그 시체는 한라산 기슭에 묻혔다.

5월이 되자 수송선 LST가 와서 장정들을 육지로 나르기 시작했다. 한번에 3천명씩 실어 날랐지만, 며칠 만에 오다가 이후에는 십여 일씩 거르면서 왔기 때문에 장정들은 매일 수평선을 바라보며 이제나 저제나 배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다 우연히 仁中 모표를 단 후배를 만났는데, 뜻밖에도 吉瑛義교장선생님께서 제주 시내에 피난을 와 계시다는 얘길 하는 것이었다. 서둘러 어렵게 외출증을 떼고서 몰아몰아 선생님이 계시다는 이도동의 崔元淳변호사 집을 찾았다.

마침내 고향을 떠나 멀리 제주도에서 교장선생님과 재회하게 됐다. 셋방을 얻어 지내셨는데, 사모님이 샷바느질을 하시고 계셨다. 나는 반갑고 서러워 울었고, 교장선생님은 오랜만에 만난 제자가 측은해서 눈물을 글썽이셨다. 사모님께서는 서둘러 갈치를 구워 식사를 차려 주셨는데, 6개월 만에 대해보는 식사다운 식사였다. 이후 나는 염치불고하고 맥을 찾아갔다.

하루는 三姓穴로 교장선생님과 산보를 가게 됐는데 “이 넓은 섬 안에 仁中 학생이라고는 자네 沈君 하나인데 수복도 늦어지고 하니 장사를 시켜주겠다”고 하셨다. 나는 하루속히 고향에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교장선생님께서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며 신원보증서를 자필로 써주셨고, 떠날 때는 귀한 껌소금 한 병을 반찬으로 하라고 주셨다.

나는 6월 21일야아 비로소 배에 오를 수 있었다. 마침 노트 반쪽자리를 여러 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틈틈이 일기를 쓸 수 있었고 5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보존하고 있다. 당시 유행하던 ‘귀국선’ 노래를 부르면서 마산 항구에 닿았다. 다시 화물차를 타고 안동을 지났고 경복 의성에 도착했다.

화물차가 움직이지 않고 義城에 머물고 있었는데, 우리들을 지계부대 요원으로 차출해서 다시 일선으로 보낼 것이라는 소문이 확 퍼졌다. 기겁을 한 우리는 보따리를 챙겨 차에서 뛰어 내렸고, 인천방향인 서북쪽으로 줄달음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 날을 보낸 후 마침내 물집으로 부르튼 다리를 끌고 고향 개간너 가좌동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제주도에 갈 기회가 생기면 가능하면 빠짐없이 가곤 한다. 당시 희생된 전우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간 장정들의 넋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제주도를 찾을 때마다 그렇게 내 가슴이 메인다.

“
채소밭 옆을 지날 때는
인분을 잔뜩 뿌린 곳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 들어가 당근이며
마늘 등을 뽑아서
씻지도 않고 입에 처넣었다.”

모이라’는 공고가 붙어 있었다. 축현초등학교로 가니까 강당에는 학생들이 꽉 들어차 있었고, 좌익 학생 대표들이 나와 조국 해방을 위해 모두 의용군에 입대하라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나는 잠깐의 휴식시간을 틈타 강당을 몰래 빠져나와 동인천역 방향의 학교 담을 뛰어넘었다. 그러곤 친구 집에 숨었다. 가좌동으로 가서 피난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의용군에 잡혀가지 않으려 산 속이나 마루 밑바닥, 다락 등에 숨어 지냈다. 낙동강 전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용감히 싸우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9월 15일 인천에 유엔군이 상륙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9월 15일 마침내 인천 앞바다에 군함들이 일렬로 새까맣게 진열하더니 함포사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세기의 전쟁영웅 맥아더 사령관이 감행했던 인천상륙작전이 이뤄졌던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인 9월 17일 패잔병 1개 소대와 해병대, 유엔군 간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몇 채의 가옥과 가축이 불타고 韓모 청년은 대한청년단 단원증이 발각되는 바람에 인민군에게 돌로 머리를 맞아 죽기도 했다.

인천에 상륙한 국군 해병대와 유엔군은 9

언어교육원 개원 45주년 기념

국제스피치대회·가요제 개최

모교 소식

언어교육원(원장 洪基瑄)은 지난 5월 13~14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원 45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스피치대회 및 국제가요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3일 한국 학생들이 참가한 ‘영어 스피치대회’로 시작해 14일에는 ‘한국어 스피치대회’, ‘제2외국어 스피치대회’, ‘국제가요제’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 중 ‘한국어 스피치대회’에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참가해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며 우리나라와 모교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또 14일 정오에는 문화관 앞마당에서 교직원, 재학생 등을 초청해 언어교육원 생일축하 점심파티를 가졌다.

李長茂총장은 축사에서 “우리 대학은 현재 2천4백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 교수와 학생들이 학문이나 생활적인 면에서 불편 없이 지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교환, 공동 강의와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모교가 보다 더 다양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모교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능력을 함양하자”고 밝혔다.

이날 스피치대회 대상에 언어학과 김정현 군, 국제가요제 대상에



는 경영학과 김진우 군이 수상했다. 또 응원상은 80여 명의 학생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열띤 응원을 펼친 언어교육원 말레이시아팀에게 수여했다.

특히 가요제 본선에 오른 24개 팀 중 반짝이 무대 의상에 프로다운 안무까지 더해 트로트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열창한 언어교육원 선돌레이크 군은 관객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예정에 없던 특별인기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국제화 시대에 다

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모교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한국인과 외국인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총 3백40여 명의 참가자 중 95명이 본선에 진출해 경합을 펼쳤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제스피치대회 ▲대상 : 언어학과 김정현 ▲금상 : 언어교육원 아데몰라, 경영학과 박진우 ▲은상 : 국제대학원 마르지아 아스라피, 독어독문학과 김현신, 전기공학부 류혁수 ▲동상 : 국어국문

학과 호시 마사하루, 법학과 장승원, 영어교육과 박병혁, 중어중문학과 김은수, 생명과학부 안예연 ▲우수상 : 대학원(음대) 김설련, 경영학과 이미령, 언어교육원 크리스나, 경제학과 절버, 법학과 송은영, 영어교육과 허준혁, 전기공학부 이승진 ▲장려상 : 언어교육원 라희·에이미·우이쿠이첸·스자키 히토에·단티옥이엠, 자연과학계열 손민주, 건축학과 권민지, 외교학과 우아라, 중어중문학과 한서영, 서어서문학과 국민경

◇국제가요제 ▲대상 : 경영학과 김진우 ▲금상 : 경영학과 박영주, 언어교육원 진서희 ▲은상 : 약학과 이준구, 언어교육원 아노·우린절명·절버, 경영학과 장건혁·이수경 ▲동상 : 수의학과 박상웅, 농생대 샌드페블스, 물리학부 윤석윤, 지구환경과학부 정진아, 언어교육원 간학치안 ▲특별인기상 : 언어교육원 선돌레이크

사우디 석유장관에 名博 수여

원유수입 안정화 등 공로 인정



모교(총장 李長茂)는 지난 5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석유 대통령’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자원부 알리빈 이브라힘 알 나이미(Ali bin Ibrahim Al-Naimi·사진 右)장관에게 명예 철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權斗煥대학원장은 추천사에서 “알 나이미 장관은 국제에너지포럼(International Energy Forum)을 부활시키고, 우리나라 원유 수입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또 장학기금을 조성해 사우디아라비아 학생을 우리나라로 유학 보내는 등 교육협력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학위수여식 후 알 나이미 장관은 ‘세계석유 공급 및 무역 전망’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여러 상품시장은 금융시장과 상호연결돼 있으며 금융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석유 가격의 변동폭이 커

졌다”며 “최근 유가 급등의 주요인은 금융시장의 내부 논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시장을 개발하는 것은 석유산업과 석유생산국의 직접적인 영향 범위 밖에 있어 특별히 석유생산국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시 석유 및 가스 제품을

을 적기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 양치기 생활을 했던 알 나이미 장관은 12세 때 굴지의 석유회사인 아람코에 사원으로 입사해 非왕족으로는 최초로 이사장이 됐으며 그 후 석유자원부 장관을 세 차례 연임하고 있다.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 레하이대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에서 지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鄭雲燦 전임 총장·李長茂총장·보직교수·재학생을 비롯해 전경련 鄭炳哲(AIP 10기)상근부회장, 알 아관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등 4백여 명이 참석했다.

모교는 1948년 이래 총 1백5명(외국인 97명, 한국인 8명)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으며, 7월 이후에는 潘基文(외교63-70) UN 사무총장에게 명예 외교학 박사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다.

차세대융합기술研

제1회 국제 학술대회 열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李建雨)은 지난 5월 20~22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연구원에서 제1회 융합기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가천의과대학 趙長熙(전자공학55-60)뇌과학연구소장, 모교 철학과 李泰秀(철학63-67)교수, 동경대 겐지로 미야노 교수, 하버드대 윌리엄 한 교수 등 국내외 석학 10여 명이 참석해 생물·의학·공학·자동차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했다.

개회식 당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미래학자 자크 아탈

리(Jacques Attali·A&A 대표)가 비디오를 통해 ‘기술혁신과 사회변혁’에 대한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지난 3월 21일 개원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모교와 경기도가 손잡고 설립한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융합기술연구원이다.

연구원은 나노, 바이오, IT, 자동차,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융·복합 첨단제품으로 실용화하는 연구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차세대 동북아하이테크 허브로서 세계적 수준의 융합기술 연구센터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와세다대의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협상이 완전히 멈춘지 5년이 됐지만 계속적으로 양국에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며 “새로운 사고로 협상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鄭宰和(경영80-84)상무는 “일본은 한국의 공산품 분야에 관해, 한국은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에 관해 여전히 입장차이가 크다”며 “입장차이와 대일 무역적자에 대한 국민들의 논리적이고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발표자를 비롯해 모교 국제대학원 安德根(국제경제86-90)교수, 산업연구원 金道薰(무역75-79)선임연구위원, 일본 경제신문 타마키 前서울지국장, 전국경제인연합회 朴大植(불문76-82)국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과대학 학장에

金建植교수 선임



지난 6월 1일 법과대학 학장에 법학부 金建植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김학장은 73년 모교 법학과에 입학해 77년 졸업, 79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85년 美워싱턴주립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주 변호사를 역임하고, 86년 모교에 부임 후 모교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장·로스쿨 추진위원장, 하버드대 객원교수, SK텔레콤 사외감사 등을 지낸 바 있다.

보대원 원장에

鄭海元교수 선출



지난 5월 12일 보건대학원 원장에 보건학과 鄭海元교수(사진)를 선출했다.

신임 鄭원장은 69년 모교 동물학과에 입학해 73년 졸업, 모교 보건대학원에서 78년 석사, 83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85년 모교에 부임 후 美캘리포니아대 방문교수, 모교 보건대학원 국민보건연구소장, 한국독성학회·환경성물연변이발암원학회 회장 등을 맡은 바 있다. (榮)

국제대학원

한일 FTA 심포지엄

국제대학원(원장 朴泰鎬)은 지난 5월 16일 관악캠퍼스 소천국제회의실에서 ‘한일 FTA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제대학원 朴泰鎬(경제71-75)원장, 한일협력위원회 南惠祐(대학원56졸)회장을 비롯해 교수 및 학생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FTA의 쟁점과 협상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일 FTA 협상은 2004년 11월 이래 협상이 중단됐으나 지난 4월 21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6월 중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은 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및 득과 실에 대해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기획됐다.

‘열공’ 재학생들 ... 봉사도 ‘최고’

학생 참여 기부프로그램 운영

서울대발전기금(이사장 李長茂)의 기부 용도별 모금사업 중 모교 재학생들을 위한 ‘대학문화’라는 기부코너가 있다.

이 코너 가운데 발전기금은 ‘사회시민 교육 강화’라는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모교 내 봉사 동아리를 지원하고 재학생들의 사회성을 향상시키며, 이 학생들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불우한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할 계획이다.

공부뿐만 아니라 선행을 베푸는 따뜻한 마음도 최고인 봉사 동아리 중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서울대 해비타트 봉사단·약대 약손 동아리를 소개한다.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사진 상) : 프로네시스(Phronesis)는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지 판단할 줄 아는 사려 깊고 현명한 태도를 포함한 지성인의 실천적 지혜라는 뜻이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은 낙후 지역을 방문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과 인생의 목표 설정에 대한 동기를 불어넣어 주고 직접 그 지역 학생들과 교류해 오고 있다.

이들은 현재 도움이 필요한 3~4지역을 2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학교자체의 지원만으로는 재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비타트 봉사단(사진 중) : 주거환경·식식·보금자리라는 의미를 지닌 해비타트(Habitat). 서울대 해비타트 봉사단(SNU HABITAT)은 현재 건축봉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학기 중에는 매월 1회 2~3일 동안, 방학기간에는 열흘 정도의 일정으



로 주로 태백지역의 건축현장에 나가 집짓기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7년 봉사단 회장을 맡았던 이거송(기계공학07입)군은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 주면서 가정을 재건하는 해비타트를 통해 많은 서울대인이 ‘사람’을 생각하고 순수함을 간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학 중에는 해외봉사로 ‘민간 외교관’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해비타트는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학내 홍보 및 봉사자 모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약대 ‘약손’ 동아리(사진 하) : 모교 약학대학 봉사 동아리를 지칭하는 ‘약손’.

매주 일요일 서울시 의사회관은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 몰려온 환

자들과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 복약상담 및 약을 조제하는 약사, 그리고 곁에서 약무 보조를 하는 ‘약손’ 동아리 학생들로 붐빈다.

지난 2005년에 설립된 이 동아리는 다일공동체 ‘밥퍼’와 중증장애인 요양원인 ‘쉼터’ 등에서 봉사 활동을 해오다가 직능을 살려보자는 취지에 2007년부터 약사 자격증을 가진 선배들과 사회복지법인인 서울시사회와 함께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환자 대부분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어서 제때 치료할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아 환자수에 비해 의약품은 늘 부족한 상황이다.

모교 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사회성이 떨어지고 공부만 잘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하다. 그러나 이런 통념과 달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서 “봉사는 나의 힘”이라 외치며 자신들의 젊음과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사회시민 교육 강화’라는 모금에 1억원 이상을 출연하면 출연자 이름으로 봉사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의 봉사 활동을 안정적이고 영구적으로 후원하고 학생회관 ‘명예의 벽’에 출연자의 이름이 세겨진다.

(모교 발전기금 제공)

고구려와 발해 도성 유적은 유물보다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통해 하늘에서 내려다 봐야 그 지리적 특성이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기존의 유물중심에서 탈피해 위성사진과 항공사진, 그리고 영상물을 중심으로 고구려와 발해사를 조망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구려 초기 수도 유적인 오녀산성, 국내성, 환도산성과 중국 요동지역에 남아 있는 고구려 성곽 백암성과 위패산성 등을 볼 수 있다. 또 무덤인 태왕릉과 장수왕릉, 평양 일대의 안학궁과 대성산성, 발해시조 대조영이 건국의 근거지로 삼은 동모산 일대와 발해 주요 유적인 크라스키노 성터 등을 만날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없다. <문의 : 880-8090>

재학생의 소리



삶의 가치 높이는 작은 참여



姜 軹 卿

(화학생물07입)

‘SNU Jumper’ 단원

최근 서울대는 미래를 향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Vision 2025’라는 모금 캠페인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모금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SNU Jumper’라는 자원봉사 단도 출범하게 됐습니다.

제가 ‘SNU Jumper’에 자원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학교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던 중 우연히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홍보메일을 통해 ‘Vision 2025’를 만나게 됐고 비록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교지만 그 이전에 평생 나와 함께 할 모교라고 생각한다면 한번쯤 학교 자체의 발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에 작은 용기를 내 ‘SNU Jumper’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비록 활동기간 내 큰 성과를 이루기는 힘들겠지만 ‘SNU Jumper’들은 우리의 노력이 모교의 밝은 미래를 향한 첫 시작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열심히 활동할 생각입니다. 약 2주에 걸친 활동을 통해 교내 모금 캠페인이 현재의 시점에서 모교에 왜 필요한가를 알리고 더 나아가 학생 사회에 애교심, 연대 의식, 기부문화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내가 학교에 하나를 주면 이는 훗날 나와 내가 속한 사회에 열이 돼 돌아오겠지’, 이것이 모교 기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모금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재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더 훌륭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면 그 시작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기부’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기쁨이며 내 삶의 일부인 것을 배울 것입니다. 내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그만큼 내 삶의 가치도 더 커지지 않을까요?

미술관

‘시그마 풀케’ 작품전

미술관(관장 鄭馨民)은 지난 5월 29일~8월 9일까지 독일문화원 및 독일국제교류처와 공동으로 ‘시그마 풀케 : 미지의 세계에서 온 음악’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5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Digital Portfolio- 6가지의 시각’이란 주제로 국내 작가들의 주요 영상작품들을 모아 ‘Cine Forum 4’를 연다.

중앙도서관

여행관련 도서 전시

중앙도서관(관장 朴明珍)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 메인홀에서 ‘바보는 방황하고, 賢者는 여행한다’라는 테마로 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미지의 세계에 펼쳐져 있는 무궁무진한 여행 정보를 소개하고 다른 세상에 대한 이해와 간접 여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榮>

박물관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 전시



발해의 세 번째 도성 - 상경성

박물관(관장 宋基豪)은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金容德·사학

63-67)과 함께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를 주제로 제45회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

동 정

수 상

▲朱奉圭(농경제50-54 모교 농경 제사회학부 명예교수)=지난 5월 1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제43회 5·16민족상(학예부문) 수상.

▲鄭良謨(사학54-58 前국립중앙 박물관장·한국 미술발전연구소장·경기대 석좌교수)=지난 5월 19일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수여하는 제11회 자랑스러운 박물관인상(원로부문) 수상.

▲元仲植(농학60-68 서예가)=지난 5월 29일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일중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1회 일중서예상 대상 수상.

▲卜成海(농생물62-66 바이오뉴트리전 대표)=지난 5월 19일 제43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석탑 산업훈장 수훈.

▲林煥澤(국문62-66 성균관대 교수)=지난 5월 27일 경기 과주시 한길사에서 제22회 丹齋賞 수상.

▲李龜澤(금속공학64-69 포스코 회장)=지난 5월 13일 서울 한남동 주한 브라질대사관에서 브라질정부로부터 '리오 브라코' 훈장 수훈.

▲辛源基(기계공학66-70 르노삼성자동차 부사장)=지난 5월 14일 제5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 산업훈장 수훈.

▲權五俊(금속공학68-72 포스코 기술연구소장)=지난 5월 19일 제43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 산업훈장 수훈.

▲柳和善(사회68-72 경기도 과주시장)=지난 4월 30일 행정혁신에 앞장 선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安鎮興(식물68-72 포스텍 교수)=지난 5월 9일 삼양그룹 수당재단이 수여하는 제17회 수당상(기초과학부문) 수상.

▲梁彰洙(법학70-74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5월 13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상허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8회 상허대상(법률부문) 수상.

▲安秉文(의학76졸 성민병원 의료원장)=지난 5월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6회 중외박애상 수상.

▲李精一(물리71-7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노소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지난 5월 19일 주한 프랑스대사로부터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교육공로훈장 수훈.

▲徐龍源(교육학77졸 대한항공 부사장)=지난 4월 30일 근로자의 날 기념식에서 무분규로 임금 단체협상을 이끈 점을 인정받아 금탑 산업훈장 수훈.

▲朴龍浩(수의학74-78 모교 수의대 학장·아시아 수의과대학장협의회 회장)=지난 5월 16일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수여하는 Distinguished Veterinary Graduate Alumnus Award 수상.

▲姜哲遠(외교76-81 YTN 해설위원)=지난 4월 30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4회 참언론인대상(시사토론부문) 수상.

▲韓三熙(사회77-81 조선일보 논설위원)=지난 4월 30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4회 한국참언론인대상(환경부문) 수상.

▲文煥哲(전기공학78-82 효성 상무)=지난 5월 16일 한국물가협회가 수여하는 물가안정대상(가정안정부문) 수상.

▲安進弘(전자공학78-82 하이닉스반도체 연구위원)=지난 5월 19일 제43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철탑 산업훈장 수훈.

▲曹秀美(성악81입 소프라노)=지난 5월 23일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 탄생 1백50주년을 기념해 '국제 푸치니상' 수상.

▲金鉉卓(대학원82-8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MIT소자팀장)=지난 5월 19일 제43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발명대왕에 선정.

▲金承漢(항공우주89-9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지난 5월 13일 국산 액체로켓인 KSR-

III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제4회 '카리스트 趙丁焄학술상' 수상.

▲崔正哲(의학93-99 모교 병원 신경정신과 전임의)=지난 5월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정신의학회 연례회의에서 '영 마인드 어워드' 수상.

▲金鍾根(AMP 53기 코오롱건설 사장)=지난 5월 20일 세종대왕 탄신일 611돌을 맞아 한글 선양과 국어발전에 힘쓴 공로로 감사패 수상.

▲李鍾洙(ACPM 1기 현대건설 사장·ACPM 동창회장)=지난 5월 20일 세종대왕 탄신일 611돌을 맞아 한글 선양과 국어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수상.

▲姜德壽(GLP 8기 STX그룹 회장)=지난 5월 13일 싱가포르 상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시트레이드 아시아 어워드 시상식에서 올해의 인물상 수상.

▲金榮培(ALP 2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지난 4월 30일 근로자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 산업훈장 수훈.

▲金陳元(ALP 3기 SBS 보도본부장)=지난 5월 13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상허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8회 상허대상(언론부문) 수상.

인 사

▲鮮于仲皓(토목공학59-63 모교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명예교수)=지난 5월 27일 광주과학기술원 제5대 원장에 선임.

▲朴紀正(사회61-68 전남일보 사장)=지난 5월 8일 대전시 병명동 호텔아드리아에서 열린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朴明珍(불문65-69 모교 중앙도서관·본보 논설위원)=지난 5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취임.

▲朴煥宅(화학68-72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5월 22일 임기 3년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8대 원장에 선임.

▲李世震(행정68-73 분회 명예사무총장)=최근 법무법인 서울중앙 고문과(주) 조은사람 상임 고문에 취임.

▲尹喆浩(농공학71-7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지난 5월 20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7대 원장에 임명.

▲朴熙正(법학73-77 前방송위원회 기획관리실장)=지난 5월 15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초대 사무총장에 임명.

▲李銅焄(정치74-78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국장)=지난 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에 임명.

▲任善彬(영문75-79 연합뉴스 편집국 부국장)=지난 5월 21일 연합뉴스 외국어뉴스국장에 선임.

▲金聲烈(교육학75-82 경남대 교수)=지난 5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채점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6대 원장에 선임.

▲金成泰(영어교육75-82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지난 5월 16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제11대 원장에 임명.

▲鄭潤(자원공학76-80 前과학기술부 차관)=지난 5월 8일 임기 3년의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에 임명.

▲蔡白(신문학77-81 부산대 교수)=지난 5월 16일 임기 1년의 한국언론정보학회장에 취임. 또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吳定圭(경영77-81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관)=지난 5월 7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국책과제2비서관에 임명.

▲閔丙寬(사회78-85 중앙일보 전 략기획실장)=지난 5월 16일 한

국신문협회 기초협의회장에 선임.

▲吳在錫(외교78-85 연합뉴스 편집국 부국장·관악언론인회 간사)=지난 5월 21일 연합뉴스 편집국장에 선임.

▲尹燁(임산가공79-83 목암생명공학연구소 부소장)=지난 5월 11일 녹십자가 설립한 비영리연구재단법인 목암생명공학연구소 제6대 소장에 취임.

▲趙亮鎬(AMP 29기 한진그룹 회장)=지난 5월 6일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李清勝(AIP 9기 前한국폴라 회장·북경 현우예술대학 이사장·베세토 회장)=지난 5월 20일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임명.

행 사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가전길재단 회장·본회 부회장)=5월 9일 인천 송도동 테크노파크에서 '이길여 암·당뇨 연구원' 개소식 개최.

▲魯仁煥(경제54-58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국제조직위원장)=지난 5월 12일부터 2주간 KBS 라디오 1FM '출발 FM과 함께'를 통해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실전

한 자원봉사활동 소개.

▲朴興日(영어교육60-64 前과학기술부 차관보·한국직장선교연합회장)=지난 6월 7일 미주성결대에서 명예선교학 박사학위 받음.

▲卞柱仙(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지난 5월 17일 서울올림픽공원 만남의광장에서 제1회 '다문화 가족 사랑 걷기 모금 축제' 개최.

▲李炳學(회화62-66 서양화가)=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서울 망우2동 송정아트갤러리에서 풍경화 작품으로 개관기념전 개최.

▲朴再英(농경제63-71 프리랜서)=최근 형 박一英(수학59-63)동문과 함께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부친(朴泰遠)의 저서 '박태원 삼국지'(깊은샘刊) 출판기념회 개최.

▲趙誠愛(응용미술64-68 임강관 화공방 대표)=지난 5월 17~21일 경기도 아람동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남송국제아트페어에 출품.

▲李南植(농화학74-78 전주대 총장)=지난 5월 22일 미국 뉴저지주 브룸필드대에서 국내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 박사학위 받음.

▲廉明培(경제75-79 충남대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오는 6월 23~26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한·몽골간 정보통신 협력방안'을 주제로 국제 정책세미나 개최.

▲曹智鉉(기악86-90 단국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5월 29일 서울 세종제임버홀에서 'Family & Soul'을 주제로 일곱 번째 피아노 앨범 시리즈 개최.

▲나유선(성악02-06 뉴잉글랜드 음악원 재학·소프라노)=오는 6월 19일 경기도 용인여성회관에서 용인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협연.
▲金泰完(ACAD 44기 한민족평화포럼 상임의장)=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충남 당진군 대남지도에서 백제역사문화탐방 개최.
▲安鎬元(HPM 6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지난 5월 27일 보호감찰을 받고 있는 무면허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준법정신 특강.

명복을 빕니다

음대 白樂皓 명예교수



원로 피아니스트 白樂皓(기악46-56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동문이

지난 5월 22일 경기도 성남 중앙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9세.

모교를 졸업한 후 미국 예일대와 줄리아드에서 수학했으며 1949년 데뷔 무대를 가졌고 한국전쟁 중에는 해군교향악단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협연했다. 예술원 회원으로 모교 음대 학장,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한국피아노학회 회장, 국제음악협회의 집행위원, 청운대 초빙교수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정희 씨와 혜영, 혜선, 정엽 씨 등 1남2녀가 있다.

▲俞碩鎭(경성제대44졸 前메트로신경정신과의원장)=6월 3일 별세.
▲金世勳(법학50-58 평안침유 회장)=5월 31일 별세.
▲金善吉(정치53입 前해양수산부 장관)=5월 15일 별세.
▲金源台(법학61-66 前대검찰청 형사부장)=5월 22일 별세.
▲南勝義(금속공학63-70 前홍익대 총장)=5월 31일 별세.
▲車白仁(경제77-81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5월 16일 별세.
▲沈明求(AMP 12 선광 회장)=5월 28일 별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empal.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난타의 문화 난타의 정치

— 崔禎鎬 지음



‘盧武鉉시대’의 산물이자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시비 담론. 울산대 석좌교수인 崔禎鎬(철학 52-

57 동아일보 객원대기자)동문이 2002년 초부터 2007년 말까지 일간신문에 실린 칼럼들을 모은 책.

金大中정권 때부터 시작된 공론권의 이념적 갈등은 盧武鉉정권이 들어서면서 한층 격화됐다. 崔동문은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정치·이념적 갈등 상황의 전개에 대해 쓴 글들을 통해 각 시대의 의미를 헤아리고, 격동의 시대들을 잇는 의미의 고리를 찾고자 했다. 〈시그마북스刊·값18,000원〉

세포배양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기

— 金承業 지음



가천의과대학 金承業(의학 54-60)석좌교수가 집필한 이 책은 세포배양의 이론과 실제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소개한 입문서로 세포배양의 역사와 배양기술, 배양세포를 이용한 연구 기술을 설명한다.

세포배양 기술은 생물체의 조직에서 세포를 분리해 이들을 단순화한 시스템 속에서 유지하는 기술이다.

이 책은 세포배양의 기초 지식에서부터 배양법의 분류와 다양한 배양기술, 검사법과 관별법 등으로 구성됐고 뒤편에 용어 해설과 색인을 수록했다. 〈자유아카데미刊·값18,000원〉

Social Change in Korea

— 金璟東 공저



모교 사회학과 金璟東(사회 55-59)명예교수를 비롯해 한국의 사회학계를 대표하는 교수 27명

이 1987년 민주화 항쟁이후 민주화, 세계화, IMF 환란, 386세대의 정권 창출과 쇠퇴 등 20년간

격동의 한국사회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집필한 영문책.

2007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어신문 코리아헤럴드에 연재했던 기획시리즈 기사를 모아 엮은 이 책은 한국사회 변화의 특징, 도시화 및 환경오염, 가치관의 변화와 이데올로기적인 혼란, 다문화 사회, 전통적인 인맥형성과 사회조직의 원리, 가족·여성·결혼제도의 변화, 시민단체의 역할, 구조적인 변화와 직업 계층 지위 이동, 빈곤, 글로벌 시대의 국가 정체성 등을 다루고 있다. 〈지문당刊·값20,000원〉

한국 현대생태소설의

서사적 유형과 분석

— 田惠子 지음



경원대 국어국문학과 田惠子(국문 61-65)명예교수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서. 환경오염에서부터 생태위기에 이르기까지 1970년 이후 발표된 소설 60여 편을 미학적 방법으로 분석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에코시대’임을 절감하고 환경·생태소설을 통해 생태위기의 현실을 파악하고 한국 생태소설의 문제점과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새미刊·값28,000원〉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 李庸中 편집



동국대 법과대학 李庸中(행대원91-93)교수가 동아시아의 주요 국제법적 쟁점을 논

의할 글로벌 학술지인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JEAIL 동아시아국제법연구)의 편집장으로 선임돼 지난 5월초 창간호를 펴냈다.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법 담론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세계 최초의 학술지인 JEAIL 편집위원으로 홍콩대, 싱가포르국립대, 동경대 교수를 비롯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의 대표적 국제법학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대 白泰雄(공법 81-90)교수와 한양대 이재민 교수도 참여하고 있다.

연 2회로 발간 예정인 JEAIL의 창간호에는 미국, 중국, 네덜란

드, 대만 등에서 4편의 논문과 2편의 소논문, 그리고 중국·대만의 양안관계에 대한 특집이 실려 있으며 그 밖의 유용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 (www.yijuninstitute.org/journal 참조)

〈YIJUN Press刊·값 개인구독 5만원·기관구독 10만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중나선 구조의 비밀

— 金炳東 지음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金炳東(농학 62-66)교수가 비교적 잘 알려진 진핵산(DNA)이

중나선 구조의 한계를 벗어나 꺾쇠호나선(Foldback Intercoil) 진핵산의 개념과 더불어 그동안 논의되거나 연구된 내용을 정리했다.

이 책은 생명의 개념과 더불어 진핵산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 진핵산의 기능과 꺾쇠호나선 진핵산의 기능, 앞으로의 생명과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았다. 〈자유아카데미刊·값22,000원〉

종합부동산세 폐지론, 재산세 과부담 / 세법에 대한 헌법 재판의 오판을 고발한다

— 金龍吉 지음



동방사회경제연구소 金龍吉(행대원68졸)소장이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소

유자인 부유층에게만 과세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치졸한 세제라고 분석함.

헌법재판소는 세금에 의한 재산의 원본 침해에 대해서도 이성을 잃어버린 이론으로 합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의 오판을 이성과 정의의 진리로 명쾌하게 비판 고발한다. 〈도서출판 반야刊·값12,000원〉

로맨티시스트,

인간을 공부하다

— 朴仁哲 지음

서울 신사동의 호산산부인과 朴仁哲(의학66-72)원장이 자신의 삶, 그 삶으로 이끌었던 현자들의 말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곁들여 펴냈다.

공연

피아노두오협회 연주회

— 6월 27일 예술의 전당

한국피아노 두오협회 제42회 정기연주회가 27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盧經妍(기악90-94)·河尙希(기악90-94)동문과 金桂和(기악88-92)·李受熹(기악91-95)동문이 메시앙의 작품으로 멋진 하모니를 연출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조유리 바이올린독주회

— 6월 29일 금호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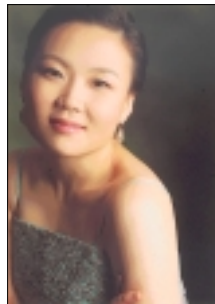
바이올리니스트 조유리(기악 96-00 코리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악장)동문(사진)이 29일 오후 3시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

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에서 석사 디플롬을 취득하고, 로스톡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조유리 동문은 이날 파야, 폴랑, 그리그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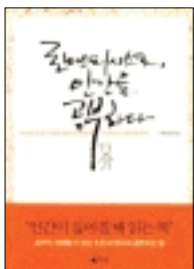
소프라노 鄭有晶독창회

— 6월 29일 금호아트홀



소프라노 鄭有晶(성악97-01 수원대 출강)동문(사진)이 2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비발디, 쇼송, 말러, 바버 등의 작품으로 독창회를 연다.

미국 맨하튼음대에서 석사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鄭동문은 오페라 ‘Orfeo ed euridice’로 뉴욕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으며, Aspen music festival에 초청받아 ‘Lucia’, ‘Carmen’에서 주연으로 활약한 바 있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이 책은 인간이 지닌 치명적 속성이 만들어내는 삶의 오류들을 먼저 보여준다. 자신은 변하지 않

면서 남을 변화시키려는 인간의 어리석음, 이성적인 듯 행동하지만 결국 감정에 치우쳐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습, 타인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잃어가는 속성 등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습관이 돼버린 이런 속성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가에 주목한다. 〈괘리온刊·값10,000원〉

눈꽃으로 내리는 소리

— 盧柚燮 지음



국제펜클럽 국제교류위원인 盧柚燮(국어교육 72-76·경영 74-79 비전 경영연구소 대표)동문의

다섯 번째 시집.

감동과 깨달음을 시의 주된 기능으로 생각해 온 시인은 이번 시

집에서도 ‘정거장을 지나’, ‘산다’, ‘사랑이란 이름 있어’, ‘반딧불이 아이들’, ‘유랑’, ‘축복’ 등 88편을 통해 사랑, 길, 영혼의 빛 등의 화두를 제시한다.

위안과 긍정, 꿈과 희망을 주는 시인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시문학사刊·값7,000원〉

나는 세계를 달린다

— 서울대 경력개발센터



모교 경력개발센터(소장 朴順媛)가 재학생들의 해외 인턴십 경험담을 수기로 엮어서 만든 책.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세계화라는 변화된 현실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세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나가는 서울대생들의 열정적인 경주를 담았다.

과거 선배 서울대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사회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 이 책 속의 서울대인은 학생 신분으로서 세계 속에서 내일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중앙북스刊·값12,000원〉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됩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 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 ◆50억원
 - △임광수(기계공학48-52)
- ◆15억원
 - △신명규(생물교육48-54)
- ◆10억원
 - △강신호(의학46-52)
 - △곽영필(토목공학56-60)
 - △구평희(정치학47-51)
 - △김상하(정치학45-49)
 - △김은중(경제학59-63)
 - △김정식(통신공학48-56)
 - △김종섭(사회사업66-70)
 - △김형주(토목공학46-50)
 - △신창재(의학72-78)
 - △오동영(조선항공54입)
 - 김찬숙(치의학56-60)
 - △윤세영(행정학56-61)
 - △이준용(경제학56-60)
 - △정계영(상학61-66)
 - △정팔도(AIP 1기)
 - 이지행
 - △홍성대(수학57-63)
- ◆5억원
 - △김주진(법학54입)
- ◆3억원
 - △김병순(AMP 4기)
 - 이지호(의학77-83)
 - △이길여(의학51-57)
 - △정석규(화학48-52)
 - △조기호(화학교육54-58)
 - 이영자(생물교육56-60)
- ◆2억원
 - △이종기(경영학69-73)
 - △장학순(토목공학46-50)
- ◆1억5천만원
 - △故김도창(법학43-47)
 - 목촌5부자
- ◆1억2천만원
 - △엄병윤(외교학60-64)
- ◆1억1천만원
 - △수학과동창회
- ◆1억원
 - △강순걸(법학54-58)
 - △김두희(물리학52입)
 - △김문현(상학58-64)
 - △故김영경(기계공52-56)
 - △김정철(건축학52-56)
 - 김정식(건축학54-58)
 - △김창식(전기공학53-57)
 - △나공목(상학56-61)
 - △남상용(건축학52-57)
 - △남정현(건축학57-61)
 - △노인환(경제학54-58)
 - 故한평화(가정교육60졸)
 - △류중희(기계공학53-57)

- △명태현(기계공학46-50)
 - △박성훈(기계공학58-63)
 - △박실상(AIC 9기)
 - △박희백(의학51-57)
 - △서정화(법학51-55)
 - △故손치무(대학원70졸)
 - △안성철(행정학58-63)
 - 손윤숙
 - △故양은숙(간호학51-54)
 - △故오응현(섬유공67-71)
 - 추경옥
 - △오홍조(치의학56-61)
 - △우인성(기계공학58-62)
 - △유상부(토목공학60-64)
 - △이금기(약학55-59)
 - △이상범(법학53-57)
 - △이수범(행정학56-60)
 - △이예식(약학46-49)
 - △이정상(상학59-65)
 - △이준행(섬유공학48-54)
 - △이지호(의학77-83)
 - △이혜원(행정학51-55)
 - △장세일(전기공학59-63)
 - △장중환(의학69-76)
 - △전동용(수의학52-56)
 - △정운환(임학56-62)
 - △정충시(화학공학72-76)
 - △조병우(섬유공학59-64)
 - △지원철(축산학73-77)
 - △최두형(행정학51-55)
 - △최상홍(기계공학54-58)
 - △최희장(섬유공학58-64)
 - △홍상욱(원예학83-87)
 - △보건대학원동창회
- ◆9천만원
 - △곽동현(법학61-65)
 - ◆8천만원
 - △미술대학동창회
 - ◆6천만원
 - △김윤택(경대원68-70)
 - △화학과동창회
 - ◆5천30만원
 - △이종현(경제학59-65)
 - 신갑순
 - ◆5천10만원
 - △박남식(SGS 2기)
 - ◆5천만원
 - △공대식(기계공학56-60)
 - △김정희(약학57-61)
 - △김종기(생물교육51-55)
 - △김중현(경제학55-59)
 - △류재명(AMP 34기)
 - △마국철(공업교육68-72)
 - △박명윤(보대원74-76)
 - △박주탁(무역학69-74)
 - △손일근(법학51-64)
 - △안 훈(수의학53-57)
 - △오인석(행정학58-62)

- △유종해(법학50-54)
 - △이도경(농학56-63)
 - 이찬진(기계공학84-89)
 - △이순석(약학61-65)
 - △이승준(섬유공학56-60)
 - 이청원(자원공학67졸)
 - △이운주(의학81-87)
 - 오지은(인류학83-87)
 - △이원규(농생물학58-63)
 - △이재원(상학55-59)
 - △이종대(천문기상학69졸)
 - △이형도(화학공학61-67)
 - 박호순(영어교육66-70)
 - △정대영(경제학51-55)
 - △정재봉(사회사업60-64)
 - △지창수(상학55-59)
 - △하권익(의학57-63)
 - △하상완(치의학64-70)
 - △홍예표(치의학65-71)
 - △황해근(토목공학54-60)
 - 故이금옥
 -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 △농대 그린장학회
 - △농대 일산회
 - △한우리SJM
- ◆3천만원
 - △고원호(기계공학48졸)
 - △박홍일(영어교육60-64)
 - △심형운(토목공학52-56)
 - △원정수(건축학53-57)
 - 지 순(건축학54-58)
 - △유석홍(무역학61-65)
 - 박영희(기악70졸)
 - △이경택(섬유공학57-61)
 - △이광식(약학66-70)
 - ◆2천만원
 - △강학순(기계공학64-69)
 - △김원일(건축학61-65)
 - 최미혜(성악66-70)
 - △김재백(약학52-56)
 - △서병륜(농공학69-73)
 - △송명호(자원공학59-65)
 - △윤세규(경제학45-51)
 - △조갑주(경제학58-63)
 - 정정영(불어불문62-66)
 - ◆1천5백만원
 - △김철순(조경학76-83)
 - △치불회
 - ◆1천2백만원
 - △강웅선(치의학78-84)
 - △심영보(의학55-61)
 - △안동일(법학59-63)
 - △오상호(전기공학48-55)
 - △이내원(화학교육58-62)
 - △이재철(법학70-77)
 - ◆1천1백50만원
 - △천남중(광산학65-69)
 - ◆1천1백30만원

- △신면우(의학50졸)
- ◆1천1백만원
 - △김상수(자원공학73-77)
 - 김태훈(건축학02-07)
 - △정해남(법학72-76)
- ◆1천80만원
 - △서병태(의학54-60)
 - △조내규(약학58-62)
- ◆1천70만원
 - △김정범(치의학60-66)
- ◆1천60만원
 - △박준욱(약학55-59)
- ◆1천30만원
 - △심이택(화학공학57-63)
 - △이영필(항공공학66-71)
 - △이형하(법학74-78)
 - △허성길(경제학60-64)
- ◆1천10만원
 - △최정길(금속공학52-56)
- ◆1천만원
 - △강신주(사회교육51-55)
 - △강신혁(문리66-73)
 - △강용현(법학71-78)
 - △강행언(토목공학61-65)
 - △권동은(FIP 4기)
 - △권혁웅(불어불문59-63)
 - △금진호(법학50-58)
 - △김 철(기계공학64-68)
 - △김기춘(법학58-62)
 - △김두만(상학59-63)
 - △김미령(약학74졸)
 - △김백준(수학62-66)
 - △김병린(토목공학55-59)
 - △김상호(법학72-76)
 - △김선양(중어중문84-88)
 - △김연호(화학공학71-75)
 - △김영갑(법학74-78)
 - △김영석(경제학60-66)
 - △김영재(공업화학77-81)
 - △김원배(동물학55-60)
 - △김윤중(약학64-71)
 - △김은식(국사학73-80)
 - 윤영옥(생물교육72-76)
 - △김일섭(경영학64-69)
 - △김재범(산업공학74-78)
 - △김종서(경제학58-63)
 - △김주환(토목공학57-61)
 - △김진규(기계공학61-66)
 - △김찬욱(기계공학55-59)
 - △김철수(법학52-56)
 - △류태환(상학48-54)
 - △문대원(경영학71-75)
 - △문성훈(식품공학86-92)
 - △박덕철(기계공학57-61)
 - △박명학(영어교육61-65)
 - △박종국(농화학57-63)
 - △박준우(의학75-81)
 - △박진희(무역학76-80)
 - △박창우(경제학80-84)
 - △백사익(채광학40-42)
 - △변상현(의학51-57)
 - △서계숙(기악56-60)
 - △석학진(상학58-64)

- △설동섭(축산학53-57)
 - △성백전(토목공학52-56)
 - △신방호(경제학67-71)
 - △신윤식(사학55-59)
 - △안경상(행정학57졸)
 - 김정애(가정교육54-58)
 - △양배덕(전기공학57-61)
 - △양성철(정치학58-64)
 - △엄기영(사회학70-74)
 - △오병제(AMP 21기)
 - △오용섭(임학60-66)
 - △유희춘(상학49-55)
 - △윤영석(경제학58-64)
 - △윤희진(축산학63-67)
 - △이강수(상학51-55)
 - △이경호(행정학61-65)
 - △이계우(행정학58-63)
 - △이병재(경대원69졸)
 - △이병형(화학67-71)
 - △이상현(정치학64-68)
 - △이석운(영어영문50졸)
 - △이인기(지질과학62-66)
 - △이재후(법학58-62)
 - △이전구(임학60-64)
 - △이종웅(기계공학65-69)
 - △이진규(치의학78-84)
 - △이창기(약학55-59)
 - △이창원(법학55-60)
 - △장무환(경제학45-51)
 - △장세권(농공학70-76)
 - △장익용(기계공학54-58)
 - △장지준(의학70-77)
 - △장휴동(농경제학59-63)
 - △조길웅(HPM 14기)
 - △조정훈(자원공학75-81)
 - △최남해(상학52-56)
 - △최선집(사회교육75-79)
 - △최승철(기계공학66-70)
 - △최준기(조선항공57-61)
 - △추재욱(의학63졸)
 - △표상기(원자력공61-65)
 - △하영기(정치학44-48)
 - △한규택(원자핵공73-77)
 - △故함인영(기계공학48졸)
 - △함정호(행정학53-57)
 - △허 선(정치학64-68)
 - △홍순자(독어교육61-65)
 - △황경로(AMP 11기)
 - △전북지부동창회
 - △간호대학
- 〈이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08년 2월 3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 ◆2백50만원
 - △홍순명(축산학68-72)
 - ◆2백30만원
 - △이준형(GLP 11기)
 - ◆1백30만원
 - △문일환(치의학65-71)
 - △송진해(공업교육63-72)
 - △임한조(물리학67-71)

- △최동식(법학76-80)
- ◆1백10만원
 - △박영원(지리학74졸)
 - △전영철(미학53입)
- ◆1백만원
 - △강덕수(GLP 8기)
 - △김석건(농경제학50-55)
 - △김종욱(경제학58-62)
 - △김진호(법학57-61)
 - △김형욱(AIP 37기)
 - △노승행(법학58-63)
 - △박순호(AMP 43기)
 - △배성경(경제학56-61)
 - △이계관(약학70졸)
 - △이석원(AIP 36기)
 - △이재원(법학77-81)
 - △이정우(독어교육64-71)
 - △정은구(법학58-64)
 - △진성박(치의학75-81)
 - △최창신(약학61-65)
 - △탁미선희(치의학76-82)
 - △허정국(치의학55-59)
 - △황승기(지구과학69-76)
- ◆80만원
 - △어 당(섬유공학68-72)
 - △장영일(치의학64-70)
- ◆60만원
 - △손두식(임학57-63)
 - △정대봉(작곡72-80)
 - △조달호(AMP 7기)
- ◆50만원
 - △김수화(물리학53-57)
 - △유석기(경제학57-61)
 - △이강소(회화61-65)
 - △이상학(경제학59-63)
 - △정이조(ACAD 48기)
 - △조남혁(섬유공학57-61)
- ◆40만원
 - △김병익(정치학57-61)
 - △김주영(사법학83-87)
 - △김형선(법학57-62)
 - △박우병(광산학52-56)
 - △박정부(AMP 61기)
 - △유동림(공업교육68-72)
 - △이계욱(무역학62-67)
 - △장정환(정치학56-63)
 - △정건용(치의학52-57)
- ◆30만원
 - △강진영(의학67-73)
 - △고건성(의학67-74)
 - △고승혜(회화66-70)
 - △고충삼(경대원63-65)
 - △공영주(약학59-63)
 - △곽현수(법학72-76)
 - △김관영(화학교육55졸)
 - △김광식(회화59-63)
 - △김기주(사학54-58)
 - △김기중(상학57-61)
 - △김남조(국어교육47-51)
 - △김동녕(경제학64-68)
 - △김병동(농학62-66)
 - △김병찬(의학53-60)
 - △김복순(간호학55졸)
 - △김상진(기계공학63-68)
 - △김상현(ACAD 27기)
 - △김성길(법학60-64)
 - △김영무(법학60-64)
 - △김영상(법학54-59)
 - △김우전(AMP 7기)
 - △김원길(경제학61-68)
 - △김운종(AIP 31기)
 - △김재실(수학63-68)
 - △김진우(경제학59-63)
 - △김진우(행정학57졸)

△김철진(법학50-58)
△김태두(경제학50-56)
△김홍석(치의학57-61)
△남해숙(회화62-66)
△노경래(법학61-65)
△노형민(기계설계73-77)
△문영학(토목공학65-70)
△문홍장(경영학74-78)
△박국수(법학67-71)
△박동현(의학70-76)
△박상균(치의학66-73)
△박순조(임학55-61)
△박원구(섬유공학73-77)
△박재권(법학66-73)
△박정서(토목공학73-77)
△박종영(SGS 10기)
△박종훈(경성악전47졸)
△박춘영(치의학60졸)
△박흥식(수학66-70)
△방정섭(기계공학62-69)
△방효선(정치학51-55)
△백창기(상학61-65)
△서정신(법학58-62)
△성주형(행정학58-63)
△성화경(가정교육59-63)
△손 욱(기계공학63-67)
△손근찬(의학52-58)
△손영섭(법학75-79)
△신현학(약학56-61)
△신훈철(화학공학47-51)
△안상수(체육교육71-75)
△양 명(AIP 9기)
△양동관(법학67-71)
△양승우(경영학68-72)
△양흥준(화학공학65-69)
△유숙자(간호학59-63)
△유영일(상학53-57)
△유용선(금속공학57-61)
△유형식(치의학59-65)
△윤덕보(HPM 1기)
△윤도중(약학58-62)
△윤명중(정치학53-57)
△윤우진(상학61-65)
△이경의(AIC 5기)
△이대순(법학53-57)
△이병홍(물리학66-76)
△이보현(법학58-63)
△이봉주(기계공학67-71)
△이상용(농생물학61-65)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이석암(횡대원78-80)
△이성원(기계공학58졸)
△이시운(대학원81졸)
△이영범(법학59-63)
△이영탁(상학65-69)
△이형기(횡대원70졸)
△이환범(토목공학56-62)
△임유택(대학원87-89)
△임의신(외교학62-66)
△임정빈(물리학66-74)
△장돈식(의학56-62)
△장병구(경영학64-69)
△장선학(섬유공학48-51)
△장창호(법학63-67)
△전민숙(기악66-70)
△전성탁(국어교육54-58)
△전재기(법학58-62)
△정상권(수학교육72-76)
△정응근(체육교육63-67)
△정대욱(상학62-69)
△정한상(법학50-55)
△정해주(법학63-68)
△정휘위(법학62-66)
△조 순(상대전문46-49)
△조대호(국사학87-94)
△조덕상(건축학66-71)
△조마해(의학77-83)
△조장래(공업교육69-73)
△조중환(행정학65-69)
△조충휘(조선공학63-70)
△주남철(대학원69-77)
△주영숙(치의학55-59)
△지삼봉(의학55-61)
△차정일(법학61-65)
△최규완(의학55-61)
△최수강(건축학70-77)
△최육환(치의학57-61)
△최의식(전기공학57-62)
△최재훈(행정학49-53)
△최종석(치의학76-82)
△최주섭(농학67-71)

△한원호(의학52-58)
△황우여(법학65-69)
△황채호(교육심리61-65)
△황해순(치의학58-62)
◆25만원
△류돈희(AMPFRI 3기)
◆20만원
△강대근(신대원76졸)
△김소례(교육학54-58)
△김승재(수학교육71-75)
△김영균(행정학52-56)
△김영지(독어교육68-72)
△김영화(전기공학59-63)
△니양병(사법학86-94)
△남종우(ACAD 30기)
△노광택(식품공학92-99)
△노선호(AMP 24기)
△박영일(경제학61-65)
△양수미(전자계산81-85)
△우성만(법학76-80)
△원호택(교육학54-58)
△이계윤(교육행정53-57)
△이만성(상학64-68)
△이복환(체육교육70-77)
△이승훈(인류학74-78)
△전창영(건축학68-72)
△정필현(의학82졸)
△조인형(AIP 13기)
△진성철(사법학82-86)
△최진규(치의학87-91)
△황선욱(화학공학55졸)
△황인수(AMP 29기)
◆11만원
△권해란(성악99-03)
△권호진(토목공학74-78)
◆10만원
△가검노(ACAD 39기)
△강경보(ACAD 20기)
△강대건(농학56-61)
△강봉춘(농화학59-63)
△강부자(ACAD 37기)

△강상규(건축학71-75)
△강승구(경제학61-65)
△강신성(영어영문55-60)
△강은순(횡대원74입)
△강인숙(국어국문52-56)
△고경호(영어교육71-75)
△고광범(상학59-63)
△고광일(물리학94-98)
△고명희(간호학73졸)
△고문자(응용미술62-66)
△고병복(미학56-60)
△고재일(SGS 4기)
△곽종익(AMP 47기)
△곽철종(ACAD 4기)
△곽현희(치의학68-74)
△구본룡(천문기상69-74)
△구준환(화학생물01-05)
△구준희(수학교육55-60)
△권 혁(원자핵공학98-01)
△권기선(수학54-58)
△권동숙(화학52-56)
△권영정(경제학72-78)
△권영해(ACAD 15기)
△권오갑(금속공학68-75)
△권오석(AIP 3기)
△권유연(인류학90-94)
△권태완(화학59졸)
△권태일(잠사학72-79)
△권혁태(경제학49-57)
△권현덕(약학61졸)
△김 광(경영학62-66)
△김 규(ACAD 39기)
△김강년(수학54-58)
△김강식(축산학52-56)
△김경동(AIP 31기)
△김구현(정치학50-58)
△김근영(잠사학65-69)
△김기순(기계공학76졸)
△김길영(행정학51-55)
△김나영(의학80-86)
△김남수(행정학64-68)

△김대하(토목공학70-74)
△김도연(HPM 13기)
△김동철(행정학61졸)
△김두완(APC 5기)
△김만현(경제학52-56)
△김명록(농대전문46-49)
△김명중(AMPFRI 16기)
△김민정(횡대원01-05)
△김병진(화학공학50입)
△김복진(농화학58-64)
△김봉수(농경제학50-55)
△김부근(약학60-64)
△김상돈(횡대원79-85)
△김상봉(AMP 46기)
△김성근(약학55-59)
△김성진(AIP 29기)
△김성환(토목공학83-87)
△김소선(조소63-67)
△김소형(GLP 6기)
△김순태(정치학56-61)
△김양일(토목공학56-60)
△김연식(화학공학47-51)
△김영근(무역학64-68)
△김영섭(섬유공학76졸)
△김영성(지리학62-66)
△김영준(영어교육73-77)
△김오성(ACAD 24기)
△김완규(화학48졸)
△김용년(불어불문54-58)
△김용석(화학공학55-59)
△김운용(사법학81-85)
△김원수(농공학56-62)
△김원호(철학66-70)
△김유영(언어학49-56)
△김윤기(통신공학54-58)
△김윤필(AIP 32기)
△김인기(수의학55-59)
△김재곤(섬유공학69-73)
△김재하(수의학52-56)
△김재현(조선해양94입)
△김정빈(잠사학61-65)

△김정화(약학57-61)
△김제심(상학51-56)
△김제필(수학55-59)
△김종관(AMPFRI 11기)
△김종국(AMPFRI 8기)
△김종락(ACAD 58기)
△김종박(의학59-65)
△김종서(약학56-60)
△김종희(의학50-56)
△김주식(무역학70-74)
△김주현(수학63-67)
△김중현(AMP 49기)
△김지자(교육학59-63)
△김진수(AMPFRI 7기)
△김진영(수의학60-64)
△김진홍(행정학57-61)
△김찬희(ACAD 1기)
△김창국(행정학58입)
△김천수(AMP 16기)
△김철규(기계공학65-69)
△김철용(정치학54-59)
△김춘석(사회학69-73)
△김태현(법학74-78)
△김택규(채광학53졸)
△김택중(건축학56-60)
△김학준(기계공학68-72)
△김현석(물리학65-69)
△김혜정(독어독문82-86)
△김홍석(정치학45-49)
△김홍훈(토목공학53-57)
△김효순(기악61-65)
△김희준(AIP 36기)
△내덕주(기계공학67-71)
△남궁원(물리학61-65)
△남병욱(화학교육72-76)
△노 찬(불어불문74-80)
△노영림(지리학66-70)
△노충래(전기공학62-70)
△도동섭(화학공학55-59)
△리영식(ACAD 58기)
△류남순(치의학70-74)
△류용구(대학원00-06)
△류종목(중어중문73-78)
△맹기석(화학공학51-55)
△문기곤(AMP 54기)
△문윤봉(AMPFRI 15기)
△문창복(AMP 52기)
△민병찬(경성대학43-46)
△민정현(생명과학01-05)



△박경희(응용미술58-62)	△성재경(조선항공53-57)	△우상호(농생물학59-65)	△이영기(ACAD 27기)	△전광현(국어국문57-61)	△최병도(AMPFRI 12기)
△박광준(약학73-77)	△손근식(전기공학62-71)	△우영제(수의학64-68)	△이영남(가정관리77졸)	△정경순(성악52-56)	△최병두(물리학54-58)
△박대평(경제학55-59)	△손동희(농공학67-71)	△우인섭(국어교육47-51)	△이영재(법학48-54)	△정관훈(HPM 8기)	△최병로(경제학49-59)
△박만규(수의학50-54)	△손호목(상학56-61)	△원용택(축산학53-57)	△이영호(ACAD 53기)	△정금채(무역학71-85)	△최병선(물리교육54-58)
△박병역(AMP 20기)	△송기면(원예학73-80)	△유 준(경성의전41졸)	△이용기(경제학57-65)	△정덕화(경제학56-62)	△최선숙(의류학77-81)
△박병호(법학50-55)	△송기준(수의학59-65)	△유근준(미학58졸)	△이용호(AMP 51기)	△정동원(약학53-58)	△최순옥(가정교육61-65)
△박상기(전기공학56-62)	△송동수(체육교육67-71)	△유노상(경제학58-64)	△이우진(APC 4기)	△정두영(영어교육60-64)	△최순원(경제학55-63)
△박석호(기계공학71-75)	△송병희(수학51-55)	△유병무(상학64-71)	△이원철(치의학63-69)	△정명수(미학64-71)	△최재형(법학75-79)
△박세철(행정학51-55)	△송상현(법학59-63)	△유현일(기계공학61졸)	△이은방(약학55-59)	△정문모(경제학61-65)	△최지영(섬유공학94-98)
△박수환(경제학55-59)	△송수남(체육교육54-58)	△윤국노(전기공학62-71)	△이인모(농경제학65-70)	△정보순(SGS 14기)	△최진규(농공학72-79)
△박순일(AMP 13기)	△송영옥(성악80-84)	△윤삼기(AIP 36기)	△이인정(AMP 35기)	△정상근(경제학68-72)	△최창수(공업화학75-79)
△박신동(전기공학65-69)	△송윤경(대학원96-98)	△윤석순(수의학59-64)	△이재규(상학65-72)	△정상기(AMP 56기)	△최태영(전기공학93-99)
△박양자(간호학60-64)	△송인찬(철학59-63)	△윤승현(AIP 36기)	△이재동(경제학53-57)	△정승필(HPM 7기)	△최평근(AIP 32기)
△박여중(건축학62-72)	△송정위(경제학60-66)	△윤영웅(HPM 4기)	△이재철(국어교육53-57)	△정여칠(행대원74졸)	△최화자(생물교육64-68)
△박영식(AIP 28기)	△송환창(농대전문46-49)	△윤의광(토목공학59-65)	△이정례(수학교육83졸)	△정용면(수리학53-57)	△태석배(AMP 3기)
△박영주(의학88-94)	△송흥빈(전기공학58졸)	△윤재강(전기공학48-52)	△이정수(ACPMP 2기)	△정우택(AIP 5기)	△하영환(조선항공47-51)
△박용일(화학공학62입)	△신강열(AIP 9기)	△윤형실(회화54-58)	△이정식(치의학55졸)	△정원석(의학52-58)	△하재준(AMP 11기)
△박용철(조선항공55-59)	△신범식(경제학52-56)	△윤혜숙(약학62-66)	△이정웅(토목공학59-63)	△정인무(농경제학53-57)	△한상준(공업교육71-78)
△박윤건(물리교육59-63)	△신상훈(ACAD 47기)	△이 준(대학원71졸)	△이종팔(치의학62-68)	△정인석(경제학89-94)	△한영옥(회화58-62)
△박인상(AMP 28기)	△신성오(법학60-64)	△이강영(약학57-61)	△이중아(AMP 37기)	△정일환(교육학46-50)	△한익상(농학61-65)
△박인자(불어교육66-70)	△신순현(의학62-68)	△이건구(AIP 24기)	△이진호(경영학64-71)	△정장오(법학74-78)	△한정연(약학85-89)
△박재암(광산학64졸)	△신영철(철학57-61)	△이경태(경제학66-70)	△이진환(영어교육54-58)	△정재민(약학77-82)	△한중석(AMP 27기)
△박재화(AIP 35기)	△신영국(교육학55-59)	△이광복(영어교육65-72)	△이창구(수학교육56-60)	△정정자(회화60-64)	△한중희(농공학57-61)
△박정래(경영학72-76)	△신정균(약학55-59)	△이기선(AMPFRI 12기)	△이창범(법학53-57)	△정종모(ACAD 25기)	△한창석(공업교육68-72)
△박종곤(독어교육60-64)	△신주현(ACAD 15기)	△이기원(성악76-80)	△이충원(의학76-82)	△정주용(AIP 37기)	△한태우(농대전문46-49)
△박종승(교육학88-92)	△신지현(사학52-57)	△이기원(기악49입)	△이한춘(법학53-57)	△정진철(행대원79-85)	△한현수(AMP 31기)
△박종원(사회교육53-57)	△신현영(화학62-70)	△이달형(정치학54-58)	△이해돈(약학68-75)	△정철기(교육학59-63)	△한효동(수리학67-77)
△박종혁(응용화학99-03)	△신형균(약학72-76)	△이덕근(물리학54-58)	△이흥근(금속공학65-69)	△정대식(수학56-61)	△함용빈(행대원73-75)
△박종형(AMP 9기)	△심동보(AMP 61기)	△이덕영(AIP 23기)	△이흥운(정치학64-70)	△정태일(AMP 40기)	△허문희(농학48-54)
△박진현(ALP 6기)	△심명수(법학63입)	△이동렬(행정학68-72)	△이흥주(경제학60-65)	△조남홍(사회학55-62)	△홍기석(약학53-57)
△박창용(농공학55-59)	△심재익(잡사학56-63)	△이두현(국어교육46-50)	△이흥준(경제학46-52)	△조사홍(화학공학56-62)	△홍기인(행정학55-59)
△박한철(의학53-59)	△심재한(화학공학53-57)	△이민달(임학57-61)	△이화지(회화60-64)	△조성태(SGS 2기)	△홍순익(약학58졸)
△박현선(성악56-60)	△심정원(지구환경99-07)	△이민익(회화57-61)	△이희석(농생물학57-61)	△조승현(의대전문45-49)	△홍승직(국어교육70-74)
△방영민(법학78-82)	△심장순(경제학58-64)	△이미순(농학56-60)	△임광수(치의학60-66)	△조원자(간호학57-60)	△황 훈(경영학68-72)
△방효선(기악70-74)	△안영수(임학61-65)	△이병렬(정치학46-50)	△임병주(불어불문50-59)	△조정제(체육교육53-57)	△황건식(농학63-67)
△배기식(임학54-58)	△안윤옥(의학66-72)	△이병현(물리학54-58)	△임영호(기계공학50-54)	△조정희(간호학74-78)	△황민자(응용미술63-67)
△배병우(법학53-57)	△안홍삼(섬유공학63-70)	△이봉주(AMP 57기)	△임종엽(기계공학50-56)	△조종대(AMP 48기)	△황병주(수의학57입)
△배상오(행정학55-59)	△안희익(수학교육54-58)	△이봉현(역사교육55-60)	△임창무(경제학53-57)	△조종현(화학공학46-50)	△황보민영(재료공학03-07)
△백남원(약학60-64)	△양승규(행정학56-60)	△이상재(불어교육59-65)	△임창우(기계공학64-71)	△주호덕(GLP 11기)	△황선무(법학58-64)
△백만기(의학43-47)	△여한수(독어독문55-59)	△이상철(AMPP 5기)	△장기산(치의학57-61)	△지금수(가정교육56-60)	△황성남(의학69-75)
△변중서(화학55-59)	△엄상호(AMP 18기)	△이석병(교육심리57졸)	△장낙연(농경제학55-59)	△지영숙(농가정학59-63)	△황익남(기계공학64-66)
△부봉훈(ALP 2기)	△엄영섭(화학66-70)	△이성근(치의학70-77)	△장대석(축산학58-62)	△차규현(ACAD 4기)	△황정선(기계공학77-81)
△부현일(회화58-64)	△염동희(법학49-55)	△이성렬(조선항공45-55)	△장봉린(의학57-63)	△차기벽(정치학46-50)	△황준식(의대전문45-52)
△서돈영(농화학63-67)	△염희고(건축학55-62)	△이성준(의학55-61)	△장운삼(의대전문45-49)	△전대승(행정학52-56)	△황히복(영어영문56-63)
△서병현(정치학53-57)	△오병근(보대원88-90)	△이성철(AMP 12기)	△장재명(전기공학57-59)	△최갑석(경대원72졸)	△황해영(국악81-85)
△서재관(행대원66-68)	△오세주(경제학55-59)	△이수정(농가정학65-69)	△장준봉(법학55-60)	△최규운(섬유공학68-72)	△황화자(성악60-64)
△서종덕(AMP 12기)	△오인택(전기공학65졸)	△이승규(의학67-73)	△장화순(지질과학50-59)	△최만희(수학교육57-62)	(이상 2008년 1월 27일
△설동욱(상학62-66)	△오장환(경제학54-58)	△이승만(물리학62졸)	△장화자(독어독문51-55)	△최명옥(국어국문65-73)	부터 2월 3일까지 출연해주
△설용수(ACAD 53기)	△오희택(AMP 1기)	△이승훈(건축학70-74)	△장희익(물리학57-61)	△최방지(국어교육59-63)	신 분)

관악회

△이 사 李禮植= 30만원

상임이사

△徐桂淑음대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남원 공대75
△강신혁 문리66 △강인식 농대79
△강정선 농대83 △경종민 공대71
△고창현 법대84 △고현진 경영74
△곽태현 공대69 △권영식 공대74
△권오석 AIP3 △권혁순 사대85
△김관진 농대66 △김광준 공대72
△김기환 의대83 △김동만 GLP15
△김동수 공대75 △김동오 HPM18
△김법환 치대81 △김병린 치대81
△김부식 법대82 △김상균 문리66
△김성호 공대78 △김수호 농대77
△김영남 공대66 △김영복 농대72
△김영일 치대79 △김영태 미대59
△김영환 AMP61 △김윤호 문리59
△김은상 경영74 △김종신 공대64
△김진돈 HPM4 △김채범 ACPM3
△김한주 약대57 △김화영 사대57
△노상호 수의88 △류영하 AMP46
△문창복 AMP52 △민병석 AMP51
△박 찬 사회75 △박귀원 의대66
△박마리 GLP11 △박만식 HPM5
△박상현 농대67 △박영주 의대90
△박영택 공대75 △박인원 의대76
△박정부 AMP61 △박준기 농대56
△박준우 의대75 △박창우 사회80
△박현상 법대76 △박희운 치대78
△백윤재 법대78 △서광석 문리51
△서병태 의대54 △서중언 공대78
△성태홍 경영83 △소재철 ACPM1
△송병순 AMP9 △송수남 사대54
△신동수 인문82 △신명중 법대80
△신명중 법대80 △신선호 경영72
△신종린 공대69 △심재익 농대56
△안산돈 법대59 △안승국 법대76
△안치득 공대76 △안태준 공대83
△양동규 치대53 △양만용 공대81
△양문섭 치대78 △양상덕 치대77
△양태덕 자연85 △염현택 사회75
△염정임 문리63 △오경호 GLP6
△오영권 법대69 △오이환 인문73
△유승호 공대83 △유호섭 농대73
△유흥렬 공대58 △윤병우 의대74
△이 준 大院71 △이강승 문리67
△이강영 AIC20 △이규분 수의61
△이기원 공대68 △이덕록 농대72
△이동수 공대61 △이동철 공대78
△이두현 AFB3 △이병환 AMFR4
△이상건 법대77 △이상훈 HPM10
△이수범 법대56 △이수호 AMP55
△이승훈 공대70 △이시룡 자연76
△이영건 ACAD45 △이인규 사대59
△이인용 인문76 △이장호 인문82
△이재근 문리57 △이재원 상대55
△이재인 AMP62 △이정수 ACPM2
△이종만 공대72 △이중호 공대62
△이진수 의대68 △이태용 상대55
△이현택 경영79 △이희재 사회69
△임진택 상대69 △장익상 AMP25
△장인환 사대77 △장종표 문리53
△전형식 공대66 △정관훈 HPM8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08년 3·4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08. 1. 24.~2. 14)·일반(08.1. 25.~2. 11)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정문성 의대78 △정연호 공대68
△정우식 공대80 △정지석 약대60
△정춘자 음대78 △조남홍 문리55
△조용완 법대61 △조준래 AMFR12
△조현욱 법대83 △조화제 자연71
△주병덕 行院79 △주재식 의대77
△주진우 문리70 △주호덕 GLP11
△진성철 법대82 △진우정 치대70
△채 현 공대79 △전남중 공대65
△최경명 치대55 △최근환 AIP29
△최기엽 사대58 △최삼현 AMFR2
△최수부 AMP15 △최재천 자연73
△최정빈 AIP34 △최종진 GLP12
△최창환 공대60 △최평곤 AIP32
△한금남 치대83 △한성홍 사대73
△한성희 치대81 △한영애 SGS2
△한정섭 공대48 △현용순 미대68
△홍성팔 치대82 △홍해남 공대73
△황길수 법대59 △황운현 공대73

(일반) △강규범 AMP62
△강명구 의대80 △강서정 생활02
△강성희 미대81 △강원혁 공대92
△강윤모 치대80 △강은모 사회78
△강현모 자연89 △강형석 공대86
△강희찬 의대76 △고대승 약대54
△고은희 사대58 △고재균 농대51
△고재석 사대79 △고평석 사회91
△구광조 사대54 △구자윤 공대71
△권동수 공대76 △권숙일 문리54
△권영대 인문83 △권일건 공대74
△기 준 공대65 △김 윤 공대68
△김경린 공대68 △김경운 인문93
△김경일 ALP3 △김경철 법대58
△김계훈 농대77 △김구웅 문리57
△김기준 상대53 △김낙기 ACAD63
△김덕영 공대45 △김동관 공대98
△김동현 농대77 △김문권 문리62
△김병철 인문82 △김보한 농대70
△김복규 行院77 △김상국 법대77
△김상호 공대77 △김선철 법대81
△김성권 치대87 △김성균 경영89
△김세종 AIP4 △김수연 자연00
△김수환 AMP15 △김수영 ACPM3
△김승철 의대82 △김영곤 의대49
△김영숙 大院86 △김영일 의대90
△김영필 법대53 △김영환 공대86
△김용기 ACAD64 △김용길 行院68
△김용훈 ALP5 △김윤일 농대66
△김인만 법대81 △김인현 AIP37
△김종남 공대97 △김종은 AMFR19
△김종협 AMP28 △김지숙 ACAD47
△김진문 상대59 △김진웅 공대77
△김충진 공대47 △김택천 사대80
△김홍배 농대81 △남기영 문리61
△남민우 공대80 △노병완 공대56
△류광준 사회89 △리정명 AIP37
△맹동호 공대61 △맹중호 문리66
△문용자 大院72 △박개성 경영85
△박경수 법대85 △박기주 법대02
△박병일 AMP62 △박성용 공대85

△박승제 농대73 △박승지 사회86
△박영환 大院83 △박원희 공대58
△박장수 공대63 △박정희 생활82
△박준우 법대72 △박중신 의대83
△박진우 공대00 △박찬호 법대77
△방기석 SGS14 △방세영 경영99
△배재류 공대81 △배형근 공대79
△변찬의 상대63 △봉운식 사회96
△사윤진 AMP30 △서근석 AMP16
△서민정 법대99 △서원호 공대98
△서정모 경영91 △서정호 의대85
△성영재 공대91 △소병은 사회79
△송영덕 음대77 △송영호 자연93
△송준영 공대94 △송창의 치대77
△신용순 자연74 △신창언 법대60
△심병연 법대73 △심영자 사대59
△심우섭 의대75 △안계동 環院84
△안병규 공대99 △안영근 약대52
△안장환 농대58 △안지은 사대00
△양승학 농생91 △양영호 공대85
△염대정 미대58 △염필현 공대78
△염정덕 공대81 △오병주 법대75
△오유경 약대82 △오인섭 법대85
△오제국 사회75 △우경녕 공대78
△우성식 농대82 △우시현 음대85
△유동재 行院87 △유수중 의대97
△유호경 AIC16 △윤성현 법대60
△윤여찬 AIP34 △이 석 공대80
△이강세 농생89 △이경철 약대95
△이경환 법대75 △이고는 농생01
△이관규 環院93 △이기춘 농대46
△이상근 법대82 △이상만 AMP7
△이상선 농대52 △이상우 인문87
△이성혁 사회89 △이성홍 공대69
△이수익 인문76 △이숙연 약대48
△이영삼 AIP5 △이영희 간호96
△이재홍 법대97 △이정양 농생86
△이정일 공대61 △이정진 사대77
△이지현 간호05 △이진영 공대69
△이진형 공대74 △이태영 공대03
△이하창 ACAD63 △이한울 법대98
△이현호 AMFR19 △이호진 농대83
△이희범 공대67 △이희석 ACPM4
△임병일 법대80 △임성덕 법대78
△임정하 법대89 △임중재 공대60
△임현중 의대93 △장득성 문리54
△장영준 AMP62 △장인협 문리51
△장형진 사대86 △전동수 사대58
△전우수 사대69 △정갑순 공대78
△정경민 사회83 △정규상 공대60
△정무혁 치대82 △정석우 공대61
△정순섭 법대83 △정영진 사대54
△정원호 농생98 △정원희 공대99
△정유진 치대01 △정제택 공대74
△정철수 공대71 △정철호 법대65
△정태전 경영86 △정효주 자연94
△조경래 사대69 △조백현 공대85
△조성수 의대69 △조세환 環院77
△조영진 치대95 △조정환 공대71
△조창현 공대93 △조한우 공대73
△주석진 공대83 △지인상 공대74
△차옥선 공대52 △차정현 음대67

△채 희 공대83 △전선희 간호03
△전주훈 공대64 △최목균 치대62
△최병호 공대70 △최상규 사회80
△최석충 行院73 △최영하 공대65
△최용석 농대81 △최준표 수의74
△최창무 법대83 △한방고 공대55
△한봉희 법대77 △한상호 GLP15
△한재열 AMP22 △허성심 CHCN2
△현수용 AFB6 △홍석준 사회73
△홍양호 ACAD63 △홍원식 사회82
△홍찬수 AFB7 △황인준 농생03

이 사

◆인문대 △김동철78 △김병철76
△최태영76 △평철호80
◆사회대 △김 열70 △김석기78
△김선기82 △임규옥79 △조현래73
△최금락76
◆자연대 △양병룡74 △이경수75
△이병홍66 △이현식73 △정성규61
△최달영79
◆경영대 △기준봉80 △김석호77
△서정희78 △신동환78
◆공대 △강구선63 △강명순40
△강영훈72 △고재홍75 △김대식78
△김병기65 △김병열72 △김병욱76
△김석주48 △김석철62 △김영운62
△김원배55 △김유환62 △김윤규62
△김정기68 △김종구68 △김종식77
△김종필70 △김주호58 △김진원68
△노철균70 △노형민73 △문영기69
△문영학65 △민경식50 △박금철48
△박용준52 △박우규70 △박찬호57
△박창순64 △방정섭62 △배기은57
△서정만64 △선석문68 △선우중호59
△성기초51 △손무익68 △송우길84
△송진해63 △송효상71 △신훈철47
△심명필69 △안기원68 △안수길50
△안재휴52 △오병권77 △오성환59
△유병철42 △유재운78 △유현식59
△윤명진65 △윤팔문57 △이명호53
△이봉주67 △이성원58 △이영길74
△이영우79 △이재욱61 △이환범56
△이효일62 △이희배57 △이희달70
△인주선63 △전홍우70 △정성민61
△정호균69 △조남철57 △조덕상66
△조두현76 △조외대68 △조응수74
△주기태69 △최승주56 △최우영79
△최재열69 △최정욱49 △최효범77
△하준환61 △현덕훈78 △황상일50
△황성혁58 △황창규72
◆농대 △권오준65 △김근영65
△김남용53 △김정복59 △나찬희73
△노원식71 △백창영69 △서병륜69
△서완수58 △송경민75 △신태식61
△오봉국48 △오세인55 △우관희63
△윤오섭48 △윤희진63 △이도경56
△이봉영76 △이영호65 △이재영66
△이흥기67 △정진구65 △최주섭67
△최찬식56 △허길행65 △홍행홍62
△황건식63

◆문리대 △강신항49 △고광용60
△구봉회62 △구태희46 △김광식59
△김기주54 △김두희52 △김병익57
△김상호58 △김선길53 △김성기60
△김승국56 △김영일62 △김재실63
△김춘석69 △류지웅51 △문희수60
△박범진60 △박영환54 △박흥식66
△방효선51 △배길훈65 △송규정63
△신용하57 △안국정63 △양철주59
△오재희53 △유양수57 △윤명중53
△윤석현46 △이기원50 △이병렬46
△이인재64 △이효원69 △임의신62
△임정빈66 △장정환56 △정규수63
△정연하61 △정의용64 △차흥봉62
△최병민71 △하영준55 △호문의61
△홍종웅65
◆미대 △고승혜66 △김 태51
△김 현78 △남혜숙62 △박재호59
△이종목76 △이주숙70
◆법대 △강 훈72 △강순걸54
△강신원72 △강용규52 △강용식58
△강태형57 △경종철60 △고영환74
△곽노준74 △곽현수72 △구만희76
△구자춘54 △권오윤56 △김권택63
△김기석59 △김석기64 △김성길60
△김승호62 △김영무60 △김영상54
△김의재56 △김익하60 △김제식77
△김진우57 △김진호57 △김창균57
△김형선57 △김홍현67 △김흥면72
△노순길69 △노승형58 △류기홍58
△류시열57 △박경보70 △박국수67
△박만호57 △박부찬56 △박상기56
△박성귀71 △박성철75 △박영하71
△박용삼63 △박원진51 △박익환81
△배용재74 △백세웅64 △변동걸66
△서경석67 △서돈양56 △서복현76
△서정신58 △송병대67 △신명균62
△신장순47 △신현무58 △심상철76
△안종택73 △양영준72 △양인평60
△오복동57 △우의형66 △유화선59
△윤교준65 △윤일영52 △윤재열50
△이광택68 △이규오43 △이기배71
△이대순53 △이병석54 △이보현58
△이상준66 △이성호76 △이세창57
△이세훈55 △이승섭77 △이영범59
△이영준57 △이용우60 △이은영69
△이재웅51 △이주성58 △이지희62
△이진배65 △이창희65 △이해봉62
△임규운53 △임종선61 △임채균69
△장병규53 △장창호63 △전재기58
△정구영57 △정연조55 △정은구58
△정지형58 △정한상50 △정해운57
△정해주63 △정휘위62 △제차룡60
△조가윤60 △조순형54 △조중환65
△주진학54 △차정일61 △최재훈49
△한 민77 △한경국57 △한덕수55
△한동우66 △한승희55 △홍세렬80
◆사대 △김관영55 △김남조47
△김상옥47 △김서령78 △박영배65
△박익두64 △박종달49 △박흥일60
△백승권53 △서정선60 △신동철59
△신하영58 △안상수71 △안승룡75
△윤익모62 △이규택60 △이준동60
△임창선72 △전성택54 △전용근73
△정덕자69 △최병주56 △최영상56
△황재호61
◆상대 △강승규65 △계준혁48
△고두모57 △곽윤광60 △구정희57
△김기중57 △김기현61 △김덕명60
△김동녕64 △김부규56 △김원길61
△김재현69 △김정우65 △김종국55

△김종욱⁵⁸ △김준식⁶⁶ △김진우⁵⁹
△김창달⁵³ △김창수⁶⁶ △김태두⁵⁰
△김형만⁵² △노인환⁵⁴ △문철환⁵⁶
△민경재⁵⁰ △박상은⁵⁵ △박영조⁶¹
△백창기⁶¹ △사공일⁵⁸ △손재환⁶⁹
△송국현⁵⁶ △송인덕⁶² △송인상³⁵
△신명호⁴⁶ △안태호⁴⁵ △오상병⁷⁰
△우두현⁶¹ △우순구⁵³ △원우식⁵²
△유영일⁵³ △윤용석⁵⁸ △윤우진⁶¹
△이갑현⁶¹ △이계안⁷¹ △이관규⁶¹
△이구수⁵⁷ △이동혁⁶⁵ △이상근⁵³
△이승웅⁶⁰ △이영서⁶¹ △이영탁⁶⁵
△이인욱⁷¹ △이재규⁶⁵ △이정복⁵⁴
△이준용⁵⁶ △이철희⁵⁷ △이히룡⁶⁹
△장만화⁵⁶ △전창수⁵⁷ △정병호⁵³
△조덕찬⁵³ △조학국⁶⁷ △최남식⁵⁹
△홍영국⁶⁰
◆생활대 △손경희⁶⁶ △유효선⁷⁴
◆수의대 △김맹웅⁶⁰ △김선일⁶³
△김성훈⁶⁶ △김오섭⁶⁶ △나길현⁵⁹
△박용호⁷⁴ △박종영⁶¹ △이강문⁶⁰
△이재철⁵² △장 영⁶² △최수호⁷⁵
◆약대 △공영주⁵⁹ △김규호⁶⁴
△김수경⁵⁷ △김영택⁶¹ △김재근⁵⁹
△김재환⁶⁸ △김진훈⁷¹ △문원호⁶⁵
△박만기⁵⁹ △박종길⁷¹ △박종훈⁴⁷
△박창서⁶⁷ △서석수⁵¹ △신박일⁶⁰
△신현학⁵⁶ △우종균⁶¹ △윤도중⁵⁸
△이가평⁶⁰ △이규호⁶⁰ △이영태⁷⁰
△이우영⁷¹ △조영준⁶⁹ △조정식⁶²
△지현석⁵⁶ △차기현⁵⁹ △최규팔⁷⁰
△최선식⁶⁴ △최중수⁸²
◆음대 △민희경⁷⁷ △이경숙⁵⁰
△이제숙⁵⁹ △전민숙⁶⁶ △정복주⁶⁶
△조운조⁶⁴
◆의대 △강길전⁶¹ △강일태⁷⁴
△고건성⁶⁷ △김광희⁵⁵ △김동은⁵²
△김병수⁵⁴ △김병찬⁵³ △김병천⁶⁵
△김종숙⁷⁷ △김찬영⁴⁶ △김형주⁵⁵
△노상권⁸¹ △문태준⁴⁴ △박동현⁷⁰
△박성태⁵⁸ △박세용⁷⁶ △박양희⁷⁰
△박영태⁷⁰ △박영하⁴⁶ △박주배⁶⁸
△방성호⁶⁶ △백운집⁷¹ △백태진⁷⁴
△선우대환⁷¹ △송희승⁵³ △심영보⁵⁵
△심웅석⁵⁹ △양두병⁶⁹ △오경균⁶⁷
△유명철⁶¹ △유병훈⁶⁷ △윤용범⁶⁶
△이갑노⁶⁵ △이대규⁵³ △이부영⁵²
△이성규⁷² △장돈식⁵⁶ △장성근⁷¹
△장윤석⁴⁹ △전성환⁷⁴ △정영덕⁷⁰
△정진택⁴⁶ △지삼병⁵⁵ △차인식⁷²
△최경진⁶⁸ △최규완⁵⁵ △최동수⁵⁴
△최세준⁵³ △최창운⁷⁸ △한종수⁷¹
△함의근⁵² △홍영수⁶⁶ △홍창의⁴⁵
△황효섭⁵⁸
◆치대 △강근수⁶³ △강효식⁵⁷
△구창수⁵² △김경애⁵⁷ △김경진⁷⁴
△김병찬⁶⁹ △김성근⁶⁶ △김성룡⁵⁸
△김수남⁵⁹ △김영철⁶¹ △김윤영⁵⁸
△김종두⁵⁵ △문복강⁶² △문일환⁶⁵
△박상균⁶⁶ △박옥련⁵³ △양희일⁵⁶
△유재석⁷⁰ △이수백⁷⁰ △이재운⁷⁶
△이정호⁶⁰ △정건용⁵² △정재영⁷⁰
△정종선⁵⁷ △조성복⁵⁵ △조형작⁶⁴
△최낙준⁷² △최성근⁶⁵ △한성훈⁶⁰
△허준구⁶⁶ △홍성호⁶⁰
◆대학원 △고창순⁶⁰ △김석웅⁸¹
△나병만⁷⁷ △박기준⁸⁶ △박용웅⁷⁴
△윤용훈⁹⁷ △임유택⁸⁷ △정문기⁸¹
◆경대원 △이운재⁷¹ △장봉인⁶⁶
◆보대원 △박순영⁶³ △이규환⁶³
◆사대원 △김창식⁶⁷ △송정호⁶⁶

△이원성⁶⁷
◆신대원 △김우룡⁷¹ △김태문⁷¹
△김희옥⁷⁶
◆행대원 △고충삼⁶³ △김상영⁶⁵
△김익영⁶⁸ △박범채⁶⁶ △배문환⁶³
△서동훈⁷³ △이영태⁷² △이재호⁶⁸
△허범도⁷⁶
◆환대원 △박형석⁷⁴ △황학래⁷⁴
◆AMP △곽안구³⁴ △권기술⁹
△권오석⁶¹ △김기용²⁸ △전현찬⁴⁴
△정광훈⁴⁷ △조길연⁴⁶ △조준현⁴⁴
△최경희³⁸ △최호경²⁸
◆AIP △강명영²⁰ △김석겸³⁶
△김윤종³¹ △박장식²⁷ △양 명⁹
△우영식²⁸ △이창규¹¹ △전영하²⁸
△추현식³²
◆ACAD △김상현²⁷ △김창식⁴⁵
△최종욱²⁰
◆SGS △김광두³ △김덕우⁹
△황용연²
◆APC △안무경⁴ △장신현³
◆HPM △김 웅⁶ △김복희¹
△류희근⁴ △박상동² △양우진¹⁵
△오국진⁵ △이공순⁵ △이태영¹
△장찬기⁸ △주영진²
◆AIC △김현식² △서장원¹⁵
△이경의⁵ △이계성¹³
◆AMPFRI △윤동노⁶
◆GLP △배원섭¹⁴ △엄용섭⁴

일 반

◆인문대 △김대환⁸⁴ △김성호⁸⁷
△김학균⁸⁹ △김현욱⁸³ △노 찬⁷⁴
△문선호⁸⁷ △박유진⁰⁰ △박지룡⁸³
△박지훈⁹⁸ △박희준⁸⁴ △서세립⁹⁹
△석제범⁸¹ △윤상필⁸⁴ △이상원⁸⁷
△이장욱⁸⁷ △이준호⁹¹ △이지현⁰²
△임미화⁸³ △장대철⁸⁴ △장윤선⁹²
△전상욱⁰⁰ △정진기⁸⁶ △조정래⁷⁰
△최경락⁹⁴ △최상열⁰⁰ △최완석⁹⁸
△최은경⁸² △추희엽⁸³ △황효성⁰²
◆사회대 △강철원⁷⁶ △권대훈⁸⁷
△김대희⁸¹ △김봉준⁰⁰ △김순태⁰³
△김연진⁸⁵ △김영만⁸⁴ △김용운⁸⁸
△김제립⁰² △김흥수⁸⁵ △문도선⁸³
△박석인⁷² △박성빈⁹⁸ △박자영⁸⁴
△박효성⁰¹ △박흥배⁸⁷ △배종하⁷⁵
△서재호⁸⁹ △손신명⁷⁸ △신창훈⁸⁰
△양춘승⁷⁴ △오문석⁸¹ △이덕희⁸⁹
△이동섭⁸⁵ △이동환⁹⁹ △이용봉⁸⁵
△이용직⁸¹ △이재성⁹² △이재열⁸⁰
△이정준⁹⁷ △이차복⁸⁷ △이현태⁹⁶
△장윤석⁸⁷ △정국환⁷³ △정성훈⁹⁹
△정우진⁹⁵ △주홍민⁹¹ △진수홍⁸⁶
△최병철⁹³ △태효섭⁹¹ △한지환⁸²
△현무성⁸⁹ △홍성수⁸⁴ △홍지연⁰³
◆자연대 △김두현⁹⁰ △김봉근⁰²
△김성환⁰⁰ △김영규⁷⁹ △김용곤⁷⁴
△김옥래⁹⁴ △김종달⁷⁷ △김종준⁸⁵
△서윤수⁶⁹ △서재영⁸³ △이기원⁷⁷
△이동화⁸³ △이원애⁷² △이재혁⁹³
△이준영⁸¹ △이찬서⁸² △정광필⁸⁵
△정용준⁰¹ △추성엽⁷⁵ △한명숙⁸⁰
△황열순⁸⁶
◆간호대 △김경자⁶⁰ △김기자⁵⁶
△김매자⁶⁰ △박양자⁶⁰ △백형자⁷⁸
△이상영⁹⁹ △이은숙⁸⁰ △이정희⁹¹
△장명숙⁶⁴ △전귀남⁸³ △정규숙⁸⁴
△최영희⁶⁵
◆경영대 △김 신⁰⁵ △김명호⁸²

△김선호⁸¹ △김종훈⁸⁶ △김지룡⁸³
△김형석⁸⁶ △모과균⁸⁴ △박훈기⁸¹
△방한술⁰⁰ △서준호⁸⁶ △손영진⁰¹
△송우현⁹⁹ △윤용철⁸³ △이영욱⁰⁰
△이의열⁷⁰ △이철주⁸¹ △조표훈⁹⁵
◆공대 △강명환⁵⁵ △강석림⁸⁷
△강용규⁵² △강일우⁷¹ △강종렬⁸³
△경창성⁶⁵ △고석렬⁵² △고창현⁶⁴
△공철규⁵⁷ △곽동수⁵³ △곽진문⁰³
△권상익⁹¹ △권영선⁵¹ △권오규⁰³
△김 철⁷³ △김경훈⁰⁵ △김광명⁵⁸
△김구권⁵³ △김기욱⁷⁹ △김남길⁶¹
△김남영⁶⁹ △김덕석⁶² △김명준⁰³
△김병진⁵⁰ △김상우⁸¹ △김상태⁷⁷
△김성관⁸⁷ △김성희⁸⁰ △김세진⁹⁹
△김수광⁵⁷ △김수현⁰⁵ △김순영⁹⁵
△김신태⁶³ △김연배⁸⁷ △김영문⁵⁶
△김영문⁵⁷ △김영진⁵³ △김영환⁵⁶
△김영훈⁹⁹ △김용근⁹⁶ △김용태⁵³
△김은철⁷⁷ △김인달⁷⁰ △김인석⁵⁵
△김재경⁹⁷ △김정욱⁵⁵ △김정인⁹⁴
△김종윤⁹³ △김종환⁵³ △김종현⁵⁷
△김지환⁴⁸ △김진한⁰⁰ △김철규⁶⁵
△김태균⁹² △김백중⁵⁶ △김현수⁰¹
△김현재⁹⁶ △김형모⁵⁴ △김혜수⁶⁴
△김호진⁹¹ △김홍만⁸⁹ △김홍훈⁵³
△김희봉⁸³ △남궁석⁵² △남궁정⁷⁸
△남오석⁸¹ △노승우⁰¹ △노총래⁶²
△노환영⁵⁶ △노희천⁹⁴ △류관영⁰¹
△류종희⁵³ △문용우⁸⁶ △문인삼⁵⁵
△문종규⁵⁸ △민병찬⁴³ △민영빈⁰¹
△박경호⁷³ △박기현⁶⁵ △박동재⁵¹
△박성대⁸⁹ △박여종⁶² △박영진⁷¹
△박용승⁵⁴ △박용일⁶² △박용철⁵⁵
△박원춘⁴⁹ △박원호⁸⁵ △박재복⁵⁸
△박재암⁶⁴ △박종규⁸⁸ △박종로⁰¹
△박종인⁹⁷ △박종태⁶¹ △박종현⁵³
△박찬영⁰⁰ △박현주⁸⁸ △박희규⁵⁴
△백학기⁵² △서세현⁶⁵ △서영근⁶¹
△서영길⁵⁹ △서장렬⁸³ △손계욱⁷⁰
△손근식⁶² △신건학⁵⁶ △신기조⁴³
△신동성⁶⁴ △신현국⁶⁸ △신현욱⁹²
△심문호⁸¹ △심재한⁵³ △심정원⁹⁹
△안상정⁹² △안홍삼⁶³ △양승철⁹⁹
△오성근⁷⁶ △오인택⁶⁵ △유무웅⁵⁸
△유병욱⁸¹ △유용주⁹³ △윤의광⁵⁹
△윤지호⁸⁵ △이강명⁶⁵ △이계호⁵⁸
△이광우⁶⁰ △이규생⁵⁷ △이규왕⁹³
△이규창⁵¹ △이규화⁶⁸ △이명원⁹⁹
△이병무⁶¹ △이성주⁹⁸ △이수남⁶⁹
△이승욱⁵⁶ △이연주⁹³ △이요섭⁹³
△이용재⁵⁵ △이욱현⁸⁵ △이원찬⁰³
△이유진⁶³ △이윤우⁶⁵ △이재우⁹⁸
△이재홍⁷¹ △이제욱⁹⁹ △이제형⁰⁰
△이정원⁶⁷ △이춘식⁸⁴ △이홍근⁶⁵
△이희환⁷⁴ △이희범⁰² △이희웅⁷³
△인용균⁸⁶ △임기택⁹⁸ △임병문⁵⁸
△임종엽⁵⁰ △임창우⁶⁴ △임형빈⁸³
△장두희⁸² △장재명⁵⁷ △장재일⁴⁸
△장희익⁶⁸ △전대극⁹⁶ △전연욱⁵⁷
△전형준⁰³ △정수영⁰⁰ △정원지⁷⁸
△정진삼⁶⁵ △정차수⁷³ △정찬영⁵⁰
△정필래⁷¹ △조 만⁵⁶ △조기식⁷⁶
△조남일⁷⁰ △조동영⁶⁶ △조래승⁵⁶
△조병국⁰⁰ △조사홍⁵⁶ △조용훈⁷⁸
△조종현⁴⁶ △진영현⁶⁹ △최건영⁰⁰
△최창환⁹¹ △최태선⁸⁰ △최현수⁸⁵
△최희정⁶¹ △하영환⁴⁷ △하태균⁸⁶
△한보식⁴⁶ △허 홍⁵⁸ △허성윤⁹⁰
△허흥기⁸² △홍기세⁵⁷ △홍민표⁷⁴
△홍성철⁸⁷ △홍순일⁵³ △황정선⁷⁷

△황찬백⁴⁸ △황철수⁶²
◆농대 △강광희⁵⁷ △강대건⁵⁶
△강인평⁵⁵ △고광기⁶⁷ △고재운⁴⁸
△구능원⁵⁶ △김규환⁴⁷ △김남현⁷⁴
△김동근⁶⁵ △김동혁⁰³ △김봉수⁵⁰
△김신호⁷⁰ △김양진⁷⁶ △김연표⁵¹
△김영달⁵⁶ △김원수⁵⁶ △김재영⁹⁴
△김재홍⁵⁷ △김정기⁵⁶ △김정빈⁶¹
△김정화⁶⁰ △김정환⁶² △목진만⁰²
△민주석⁸⁰ △박남중⁵⁴ △박상홍⁵⁵
△박순석⁵⁰ △박용길⁵³ △박재룡⁵⁸
△박정수⁶¹ △박정원⁵⁶ △박진환⁴⁸
△박창규⁷⁰ △박창용⁵⁵ △박창호⁵⁸
△박홍목⁵⁶ △박홍준⁸³ △서정겸⁶⁷
△성용훈⁵⁰ △송기면⁷³ △송춘중⁵⁵
△신재인⁵⁶ △안건용⁵² △안세희⁷⁷
△양두석⁵¹ △연장식⁸⁴ △오세훈⁵⁸
△오충용⁶⁰ △우무일⁶⁴ △우상호⁵⁹
△원인희⁷³ △유원희⁷¹ △윤덕균⁵³
△윤상렬⁵⁷ △윤영채⁶⁹ △이 욱⁹⁹
△이계진⁵⁶ △이두철⁸¹ △이병래⁸²
△이병하⁵⁵ △이병현⁵⁹ △이상호⁵²
△이성묵⁶⁰ △이수봉⁵⁷ △이수장⁵⁸
△이영문⁵² △이운규⁸⁶ △이원식⁵³
△이장훈⁸⁴ △이정균⁸² △이종구⁵³
△이종록⁴⁹ △이종섭⁵⁷ △이주효⁹⁹
△이진희⁸¹ △이홍석⁵² △임경순⁵⁴
△임광환⁵⁵ △임형백⁸⁹ △장낙연⁵⁵
△장대석⁵⁸ △전성익⁵⁵ △정민현⁵⁵
△정승우⁰² △정영관⁵⁶ △정인무⁵³
△정지철⁰¹ △정진욱⁵⁵ △조규열⁵²
△조규환⁶³ △조진태⁵⁴ △조한욱⁵³
△지영숙⁵⁹ △최동열⁵⁰ △최봉서⁹⁰
△최영대⁹⁵ △최영주⁷⁵ △최용호⁰⁰
△최원개⁵⁰ △최종원⁹⁵ △최현숙⁶⁵
△하 원⁶² △한상봉⁵⁷ △한성식⁵⁸
△한익상⁶¹ △한정식⁷¹ △한중희⁵⁷
△한춘연⁵² △허문희⁴⁸ △현호언⁵³
◆문리대 △강신성⁵⁵ △강학철⁵⁵
△공대식⁵⁰ △곽광수⁵⁹ △권기선⁵⁴
△권동숙⁵² △권안도⁷¹ △권의식⁶⁷
△권태승⁵⁵ △김계란⁵² △김구현⁵⁰
△김규원⁶⁰ △김근수⁶⁵ △김상진⁷¹
△김수학⁵³ △김순태⁶⁶ △김영성⁶²
△김영철⁵⁷ △김용권⁵⁰ △김용년⁵⁴
△김유영⁴⁹ △김정호⁵⁵ △김주현⁶³
△김철용⁵⁴ △김치근⁵³ △김태욱⁵⁸
△김형련⁶⁶ △김홍석⁴⁵ △김흥수⁵⁷
△나학진⁴⁸ △남이웅⁶⁸ △노영립⁶⁶
△맹동원⁷¹ △박관운⁵⁶ △박명기⁵⁷
△박승순⁴³ △박재만⁵⁴ △박창고⁵⁴
△박형달⁵⁵ △방재환⁶⁶ △백병기⁶⁰
△백영근⁵⁵ △서병철⁵⁹ △서병현⁵³
△서정욱⁶⁰ △서창모⁶¹ △성명제⁵⁴
△송병희⁵¹ △송인찬⁵⁹ △송현주⁴⁹
△신충균⁵¹ △신효순⁶¹ △오임렬⁵²
△우삼백⁶⁸ △유진당⁵⁴ △윤능민⁴⁷
△윤재문⁶³ △윤하정⁴⁷ △이 강⁵⁶
△이건무⁶⁵ △이광수⁵⁴ △이근호⁵⁵
△이달형⁵⁴ △이덕주⁶⁶ △이돈형⁵⁸
△이동욱⁶³ △이문구⁵⁹ △이범주⁶⁴
△이병현⁵⁴ △이상진⁶⁶ △이석운⁵⁰
△이성재⁵⁹ △이승만⁶² △이영식⁵¹
△이재룡⁵⁰ △이정숙⁵³ △이종명⁵⁴
△이종인⁵⁴ △이종길⁶² △이택주⁶⁶
△이평우⁴⁸ △이혜봉⁶² △임병주⁵⁰
△임선재⁵² △장화순⁵⁰ △장효희⁵²
△전대식⁵³ △정 탄⁶⁵ △정기인⁶⁰
△정기호⁵⁰ △정삼운⁶⁴ △정서웅⁶²
△정지식⁶¹ △조재두⁵⁰ △주석순⁴⁸
△진무현⁵² △진홍순⁷⁰ △차기벽⁴⁶

△최병두⁵⁴ △최성규⁶⁰ △한정인⁵⁰
△한창호⁶⁵ △홍순호⁵⁷ △황하복⁵⁶
◆미대 △강대운⁵⁵ △김경애⁶⁸
△김민정⁰¹ △김재윤⁰² △변대성⁵⁴
△신완식⁷³ △신현경⁷⁹ △양진석⁹⁹
△윤형실⁵⁴ △이만익⁵⁷ △이상희⁶⁰
△이성도⁷⁴ △이우성⁵² △이우성⁹²
△이호욱⁹⁹ △전혜란⁰² △정 훈⁹¹
△정상문⁸⁴ △정선화⁵⁶ △정정자⁶⁰
△조새미⁹² △최은규⁷⁷ △한형석⁹¹
△함혜란⁸³
◆법대 △강병연⁵⁷ △강석균⁵⁰
△강성태⁵⁴ △경익현⁵⁷ △고명윤⁵⁴
△고재화⁶² △권은민⁸² △김국진⁶⁰
△김기경⁸⁵ △김기정⁷⁷ △김길영⁵¹
△김남수⁶⁴ △김남진⁵¹ △김래니⁸⁸
△김명진⁷⁴ △김영균⁵² △김영삼⁶¹
△김영한⁶² △김운용⁸¹ △김원주⁵³
△김유동⁸⁶ △김정유⁸⁴ △김정환⁵⁷
△김종률⁸¹ △김종훈⁸³ △김종환⁶⁸
△김준호⁵² △김중성⁸¹ △김지수⁸¹
△김진홍⁵⁷ △김철규⁵⁵ △김철진⁵⁰
△김홍우⁸² △남계호⁵⁴ △노대래⁷⁴
△도용락⁶⁴ △마경태⁰¹ △문동후⁶⁷
△민병환⁸⁶ △박관근⁸⁵ △박세철⁵¹
△박재영⁹⁴ △박종순⁵⁴ △박정석⁶²
△박태석⁷⁷ △반성우⁵³ △방영민⁷⁸
△배달순⁵² △배병우⁵³ △배상오⁵⁵
△서승완⁵⁸ △서영태⁵⁷ △설경진⁶¹
△송경호⁹⁰ △송준재⁶⁴ △신배식⁷⁷
△신상갑⁵³ △신성오⁶⁰ △신현정⁴⁸
△심상명⁶⁰ △안남규⁵⁰ △안현원⁶⁰
△양재식⁸⁴ △양철용⁰¹ △우종팔⁶¹
△유영상⁸¹ △윤재승⁸¹ △이강수⁵³
△이경민⁷⁶ △이경재⁶⁸ △이교림⁷³
△이기택⁷⁸ △이대우⁶⁷ △이동렬⁶⁸
△이성규⁹² △이성훈⁷⁷ △이재현⁷⁰
△이정섭⁰⁰ △이정식⁷⁸ △이제관⁸³
△이창범⁵³ △이한준⁵³ △이흥무⁷⁹
△이희철⁴⁷ △임안기⁵⁴ △임관호⁵⁴
△장재형⁷² △정상조⁵⁷ △정의종⁸²
△정의원⁴⁶ △조성일⁶¹ △조영승⁶⁴
△조주운⁵⁶ △조지만⁹⁰ △주경진⁵⁵
△주성원⁷³ △차종호⁵³ △최귀인⁵⁶
△최용구⁰⁰ △최원빈⁵³ △최종길⁸³
△한연수⁹⁵ △한재영⁹⁴ △한형건⁴⁹
△허승태⁷³ △홍지수⁰¹ △황선무⁵⁸
△황영욱⁵⁹ △황윤주⁵²
◆사대 △강길선⁵⁷ △강순규⁷⁶
△강신희⁵³ △고병철⁶¹ △구영주⁷²
△권태원⁴⁹ △금승호⁶⁰ △김관복⁸¹
△김길순⁶¹ △김낙정⁷² △김대용⁰⁰
△김병식⁸¹ △김봉호⁶⁸ △김상현⁶⁶
△김소례⁵⁴ △김순신⁵¹ △김영준⁷³
△김용선⁵³ △김유명⁶⁹ △김윤정⁰²
△

△이수진⑩ △이수찬⑤⑥ △이양선⑤⑥
△이용덕⑦① △이용우⑤⑤ △이우진⑤③
△이은영⑦① △이정태⑦① △이정호⑨⑥
△이창호⑦① △이향수⑧⑥ △임승철⑩①
△장정현⑦⑧ △장혜정⑩① △전수남⑤⑨
△전종대⑦⑤ △정동춘⑧① △정두영⑥①
△정문환⑤⑥ △정수만⑦① △정연순⑥①
△정호경⑤② △조의래⑤⑥ △조제제⑤③
△조철원⑤⑤ △최광민④⑨ △최병록④⑨
△최희주⑤② △탁혜경⑦⑨ △현영희⑥⑦
△홍정희⑤⑤

◆상대 △고광범⑤⑨ △곽 규⑤①
△권기봉⑤④ △권영욱⑤④ △김동엽⑥②
△김만현⑤② △김상렬⑥④ △김상희⑥⑨
△김연조⑤⑥ △김영근⑥④ △김영무⑤⑥
△김유래⑥① △김정환⑥① △김종해⑤①
△김주호⑤① △김진호⑤① △김진화⑤⑧
△김창수⑥③ △노병태⑥① △박경상⑤⑦
△박경석⑤③ △박광규⑤⑥ △박대평⑤⑤
△박복양④④ △박봉흠⑥⑧ △박상호⑥③
△박종후⑤④ △박주탁⑥⑨ △서돈운⑤⑧
△서재진⑥① △손명환⑥① △송정위⑥①
△신범식⑤② △심창순⑤⑧ △양세규⑥②
△오영욱④⑤ △오장환⑤④ △우상섭⑤③
△위봉택⑥② △유방창⑥① △유병무⑥④
△유희선⑤⑤ △윤상규⑤⑦ △윤석환⑥⑧
△윤지원⑤⑨ △이명기⑤⑨ △이상학⑤⑨
△이성재⑤③ △이성희⑦① △이세창⑤⑤
△이연수⑥④ △이영상⑤① △이용기⑤⑦
△이재원⑤① △이종렬④⑨ △이필원⑥①
△이희준④⑨ △임영식⑤⑦ △임정일⑥②
△임창무⑤③ △장동수⑤⑧ △전완식⑥①
△전인홍⑤④ △전장원⑤⑥ △정덕화⑤⑥
△정문모⑥① △정성환⑥④ △정세진⑤③
△정웅진⑥③ △정정숙④⑧ △정진홍④⑤
△제정오⑤⑦ △조 원⑤⑥ △조문제⑤⑨
△조성진⑤⑤ △조은구⑤④ △진영보④⑧
△차병권④④ △채규원⑤① △최동호⑥⑤
△최병로④⑨ △한덕수⑥⑦ △한의수⑤③
△한홍광⑥① △허 석⑤⑨ △현임중⑤⑥
△홍성표⑤⑨

◆생활대 △김명경⑧③ △김성희⑥⑨
△김정주⑤⑥ △김지영⑥⑨ △박수경⑥④
△손유진⑨⑨ △신덕호⑨⑨ △신은철⑦③
△안계주⑦⑦ △오경숙⑧② △이영남⑦⑦
△이정자⑦⑦ △이화숙⑤⑦ △임인순⑤⑧
△최규순⑥① △허욱재⑥⑦

◆수의대 △권순기⑤⑦ △김배원⑥①
△김석래⑧② △김영무⑥① △김재하⑤②
△김정근⑤① △김주성⑤④ △김진영⑥①
△김협수⑧① △류기승⑥① △박만규⑤①
△박춘강⑦⑦ △박현기⑥⑥ △송남훈⑥④
△신래섭⑤⑥ △신형철⑧② △우영제⑥④
△유승창⑥③ △윤석정⑥① △이우영⑤⑨
△이형우⑤① △임동주⑦④ △임정수⑥④
△정영시⑤④ △정용면⑤③ △정우경⑤⑤
△정윤섭⑤⑤ △정태규⑤⑥ △지성학⑤⑦
△최성호⑤⑦ △최윤석⑤② △홍두표⑤⑤
△홍순국⑤④ △황병주⑤⑦

◆약대 △권현덕⑥① △김경욱⑥④
△김기현⑤② △김민수⑤⑤ △김병각⑤③
△김삼영⑤⑧ △김성근⑤⑤ △김수영⑤⑧
△김용길⑥④ △김인제⑥⑤ △김정숙⑥⑨
△김정화⑤⑦ △김학균⑤① △김희정⑩①
△김희중⑤⑨ △나종천⑧② △남충우⑥②
△박승무⑥⑤ △박영일⑨① △박지인⑩①
△배복희④⑦ △백남원⑥① △서남현⑤⑨
△송승희⑨⑨ △신형균⑦② △안양찬⑤③
△염문경⑤⑤ △우재성⑦① △이강영⑤⑦
△이규송⑤② △이명배⑥① △이재현④⑤
△이재현⑦⑦ △이재호⑦② △장덕만⑤⑨

△장봉수⑥① △정근배⑥① △정동원⑤③
△정상철⑤② △조미정⑧⑦ △최병균⑤②
△하성상⑤⑧ △한용필④① △홍기석⑤③
△홍순억⑤⑧

◆음대 △강형은⑩② △김상원⑧⑦
△김영숙⑤⑤ △김영철⑤⑧ △김은경⑤⑦
△김의창⑥② △김종필⑧① △민홍자⑥③
△박정자⑥① △방영호⑧① △서유석⑧⑨
△서지수⑩① △설영아⑦⑤ △송영옥⑧①
△오양구⑥④ △유은숙⑨③ △유화자⑤⑨
△이기원④⑨ △이기원⑦⑥ △이영자⑤⑥
△이주혜⑨② △이효순⑥③ △임정선⑤⑦
△전상직⑧② △정선희⑩① △정소라⑨⑨
△정지인⑨⑦ △정혜연⑩② △최경은⑩①
△한애화⑧④ △함전혜⑥② △홍순미⑦①
△홍지영⑧③ △황영기⑧② △황응준⑧⑦
△황인화⑤⑤

◆의대 △곽계혁⑨⑥ △김기봉⑦⑤
△김길남⑦⑤ △김명원⑧⑥ △김병재⑨③
△김용식⑦① △김우영④③ △김종박⑤⑨
△김종화⑤① △김진국⑧⑧ △김형규⑤⑤
△남궁견⑥⑦ △민병섭⑤④ △박용수⑧⑤
△박한철⑤③ △박훈영⑦① △박희임⑨⑨
△백만기④③ △변창세⑥⑨ △서창석⑦⑨
△선경민⑩② △송인배⑦③ △신성우④⑦
△양요환⑦③ △양원용⑥⑨ △염태현⑧⑤
△염용태⑤⑧ △오경균⑥③ △오경백⑦①
△원세재④⑥ △유 준④① △유영미⑧②
△유종근⑦① △윤병란⑦⑨ △윤자현⑤③
△이건우⑧⑧ △이봉재⑦② △이상림④⑥
△이상완⑤⑤ △이성준⑤⑤ △이성희⑧⑥
△이애영⑦⑤ △이언복⑤② △이응일⑤④
△이인식⑦⑥ △이종일④⑥ △이진룡⑦①
△이철현⑥⑦ △이춘배⑧③ △임형수⑨⑨
△장운삼④⑤ △전호수⑧⑤ △전호승⑧①
△정범영⑨④ △정한신⑧⑨ △정항보⑧①
△조병주④⑥ △조성근④⑦ △조승현④⑤
△차왕보⑤③ △채희복⑧⑤ △최덕영⑤⑧
△최윤식⑥③ △한예택⑤① △현응설④⑤
△홍병수⑨④ △황규천⑦④ △황준식④⑤

◆치대 △강우근⑥④ △강인희⑦⑦
△강정규⑤⑧ △강정욱⑧③ △곽재혁⑩①
△김기호⑤⑥ △김두현⑤⑧ △김병기⑥①
△김상세⑥① △김성래⑤③ △김시영⑩①
△김원겸⑧② △김정욱⑧③ △김창희⑥②
△김택근⑤⑧ △김화봉⑦⑦ △김효순⑥⑧
△문창남⑤⑧ △민기주⑧① △박주태⑦①
△백승진⑦⑤ △손호현⑦① △송현미⑦⑨
△심연택⑦① △안경민⑦⑥ △양재희⑦⑤
△염경철⑥① △염성환⑦② △오세웅⑨①
△이광건⑦③ △이상용⑧② △이석곤⑨①
△이원철⑥③ △이장호⑦⑤ △이재명⑥③
△이정식⑤⑤ △이준기⑤⑤ △이창우⑦⑤
△이정룡⑦① △이태영⑥⑦ △이한규⑨②
△이흥렬⑤⑦ △임광수⑥① △임성균⑤⑨
△임종호⑧② △임형우⑤⑦ △장기산⑤⑦
△장명우⑧③ △전영섭⑥① △조광현⑦①
△조일제⑦⑦ △차만희⑤⑦ △최세원⑦⑦
△한건웅⑥① △허재식⑨③ △허정규⑥②
△홍금표⑤④

◆대학원 △김경남⑧④ △김종수⑦⑨
△남재국⑧⑧ △손상익⑧⑤ △장인정⑧①
△정도영⑧② △정병희⑤② △한상서⑤⑤
△한홍진⑨②

◆경대원 △신길수⑥⑧ △이영희⑥⑦
△이종달⑦③ △최갑석⑦②

◆교대원 △오철진⑦③

◆국대원 △최영주⑩⑤

◆보대원 △권영호⑦① △김남주⑥⑥
△김영웅⑦⑤ △김종만⑥② △김좌상⑥①
△김진순⑦⑥ △오병근⑧⑧ △이민희⑦④

△이태희⑧⑦ △조귀래⑩④ △최보율⑧⑤
△홍정선⑦④

◆사대원 △지현범⑥③

◆신대원 △윤임술⑥⑨

◆행대원 △김덕중⑧② △김동호⑥⑧
△서재관⑥⑥ △이기섭⑦⑦ △이준원⑧⑦
△이창세⑥①

◆현대원 △강은순⑦④ △유철상⑦⑦
△채승기⑧① △최주섭⑦⑤

◆AMP △권기정④④ △권영남⑥②
△김기열③① △김명호③② △김병두②④
△김선동②⑧ △김성식④④ △김수곤②①
△김용수①⑤ △김우전⑦⑦ △김옥환⑥②
△김정환①⑤ △김정규②④ △김정도⑤④
△김중현④⑨ △김진찬④③ △김치곤⑦⑦
△김희수⑥② △나희수③⑧ △노선호②④
△도동환②⑥ △민상기②⑤ △민영복④②
△박달용④④ △박병익②① △박순호②③
△박영근①⑦ △박인종②⑤ △박종형⑨⑨
△박중서①① △박철구⑥① △배석범③③
△서영하③④ △서종덕①② △성백진③⑥
△손언승⑤① △신경래⑤① △신우식②④
△심동보⑥① △안영복①① △양창규⑤①
△오희택①① △유세종⑤⑥ △유영걸②⑥
△유재우④⑦ △윤동균④⑥ △이규천⑥①
△이근표⑥② △이방수③⑦ △이성철①②
△이시용③① △이종수④① △이창수⑥③
△이태희⑥① △이한규②③ △이화일①③
△장기홍⑧⑧ △장대수⑥③ △전상기②②
△정 열①④ △정공식⑥③ △정기택③①
△정병호①⑦ △정일기③⑤ △조달호⑦⑦

△진홍균⑨⑨ △최기덕①④ △최병면④①
△한현수③① △한형수④⑦ △홍경선⑤②

◆AIP △고형석②① △고희수②⑤
△구왕현①② △김우식①⑨ △김윤필③②
△김일수①④ △김학규②⑥ △김희준③⑥
△박몽식①⑥ △박재화③⑤ △박태근①⑥
△백경흠②③ △송무현③⑦ △신강열⑨⑨
△신국호③⑦ △심규진①② △유춘종①④
△윤삼기③⑥ △이건구②④ △이덕영②③
△이석원③⑥ △이언구③⑥ △이중기⑤⑤
△이현희①⑤ △정병화③④ △정주용③⑦
△진영환⑨⑨ △차정웅①⑧ △최평욱⑦⑦
△한도식①⑤ △한상규②① △황이남②②

◆ACAD △가겸노③⑨ △강경보②①
△고세일③② △권영해①⑤ △권영호⑥①
△김 규③⑨ △김덕영①⑧ △김영준③①
△김영호③⑤ △김종식⑥① △김진섭③⑧
△김태환③⑧ △남종우③① △문동신⑤⑤
△민병운⑤⑥ △박만운④① △박상수①⑧
△송정호⑥③ △신상훈④⑦ △신정수①②
△신주현①⑤ △심영철⑤⑨ △오복용⑤①
△오필기②② △이강연②⑦ △전종식⑦⑦
△정동우⑥⑥ △조강호③⑦ △조병창③①
△조주태①④ △최병인⑤⑤ △최재승③⑧

◆ABP △권금자②③ △김현식②①
△나영제②④ △박귀남②⑧ △박형규②①
△서갑석⑥⑥ △심상렬②③ △양병기③①
△이수연②③ △이인호②⑥ △조도천②⑤

◆SGS △김명수②② △박남식②②
△박해준①⑦ △임창규①⑥ △정해순③③
△황종현①⑦

◆CHCN △박은수⑦⑦ △유혜숙⑩①
△정경란⑧⑧

◆APC △김정형⑤⑤ △박광신⑧⑧
△신광현⑦⑦ △이영세④④ △이우용③③
△이우진④④ △조성구⑦⑦ △한길호④④

◆HPM △김상백①① △김일용⑥⑥
△김재영⑩① △김중곤①⑥ △김학기①⑥
△사재훈②① △엄금량①④ △윤영웅④④
△이주국②② △전영숙⑤⑤ △정기권①⑨

◆AMPP △김상욱⑦⑦ △김원택⑤⑤
△양은희⑦⑦ △이상철⑤⑤ △이영석⑤⑤

◆AIC △곽동석①⑨ △동상태⑩①
△박태규⑤⑤ △윤영기②② △이현태②①
△정장환①① △허현욱①③

◆AMPFRI 김상철④④ △김종국⑧⑧
△김진수⑦⑦ △박진태②② △이규태①④
△천병기①⑨ △최병도①② △한철웅①①

◆ACPMP △박상남③③ △최정구③③

◆FIP △성낙민①①

◆GLP △강승규①④ △김병두①②
△박옥영①④ △송범호④④ △염영복⑦⑦
△이준형①① △임영규⑧⑧ △임현수①⑤
△정민호④④ △정학섭①⑤

◆ALP △박진현⑥⑥ △정기환⑥⑥

3·4 월계 : 150,820,000원
평생회비 : 141,900,000원
입 회 비 : 1,050,000원
총 계 : 625,190,170원